
2022년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

- 단절에서 개방을, 개방에 소통을 더하다! 우리 품에 캠프마켓! -

2022. 04.



제출문

본 보고서를
‘2022년 인천시민시장대토론회’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04.

코리아스픽스(주) 대표이사 이병덕
기획2본부장 김영주
기획2본부 팀장 정지혜

목 차

I. 토론회 개요	2
1. 행사개요	2
2. 진행순서	2
3. 프로젝트 설계	3
4. 퍼실리테이터 디자인	4
II. 토론 결과	5
1. 토론결과 요약과 해석	5
1)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공간 선호도	5
2)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9
III. 토론 전·후 인식 조사 결과	11
1. 토론 전 인식 조사 결과	11
1) 성별	11
2) 연령대	11
3) 캠프마켓의 역사적 가치	12
4)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공간 선호도	13
5)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14
2. 토론 후 인식 조사 결과	15
1)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공간 선호도	15
2)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15
IV. 토론	16
1) 입론·상호토론 결과	16
2) 입론·상호토론 주요 내용	17
3) 입론·상호토론 투표결과 비교	18
V. 부록	19
1. 사전조사와 일반시민조사 결과 비교	19
2. 사전조사 결과	26
3. 토론참가자 입론 내용(Raw data)	35
4. 현장스케치	47
5.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49

I. 토론회 개요

1. 행사개요

- 주제 : 단절에서 개방을, 개방에 소통을 더하다! 우리 품에 캠프마켓!
- 방법 : 오프라인 & 온라인 토론
- 일시 : 2022년 3월 31일(목) 14시 ~ 16시 30분
- 장소 : 캠프마켓 내 잔디마당
- 규모 : 200인
- 주최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광역시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부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광역시
- 진행 : 코리아스픽스(주), (사)한국퍼실리테이터연합회

2. 진행순서

구분	시간		주요내용
1부(14:00~14:50 개회식 등) *사회자 : 장용(인천시 홍보대사)			
여는마당	14:00~14:10	10'	- 개회, 참여자 소개 및 인사 등
표창수여	14:10~14:20	10'	- '21년 하반기 토론회 우수제안자 표창
현장투어	14:20~14:50	30'	-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는 캠프마켓 B구역 건물 중심 해설 투어
2부(14:50~16:30 토론회) *토론 진행자 : 코리아스픽스 이병덕 대표			
주제발제	14:50~15:00	10'	- 발제1 캠프마켓 토양오염 정화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이근일 한국환경공단 과장
	15:00~15:10	10'	- 발제2 캠프마켓 시민공원 조성 계획 류제범 인천시 캠프마켓과 과장
원탁토론	15:10~15:20	10'	- 마음열기 - 사전조사 결과 공유 - 토론 규칙 안내
	15:20~16:00	40'	- 입론 및 상호토론 [단절에서 개방을, 개방에 소통을 더하다, 우리 품에 캠프마켓]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중요한 세부사항은? *입론 :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입론(1분 30초) *입론이 마무리되면 상호토론 진행
	16:00~16:20	20'	- 전체토론 및 투표
닫는마당	16:20~16:30	10'	- 소감 인터뷰, 마무리 말씀, 기념촬영

3. 프로젝트 설계

- 1) 사전조사 설계 : 사전조사는 토론회 전 사전조사를 통해 의제를 사전에 공유하여 토론회 당일 깊이 있는 산출물 도출을 유도하고, 숙의 전과 후의 의견 변화 추이를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계했다.

-
- 조사기간 : 2022년 3월16일~3월18일 (3일간)
 - 조사대상 : 원탁토론 참가신청자 172명(응답 수 138명 / 응답률 80.2%)
 - 조사내용 : ▶ 인구사회학적 조사 :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군, 거주기간
▶ 캠프마켓 역사와 개방 및 반환 과정에 대한 인식과 세부사항
▶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과 세부사항
 - 조사방법 : **참가자 대상 1:1 전화면접 조사(MMS 조사 병행)**
 - 분석방법 : **개별 의견의 키워드 추출 및 상향식 구조화**
 - 조사 및 분석 기관 : 코리아스픽스(주) 숙의리서치센터
-

2) 토론방식 설계

- 2022년 상반기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는 반환된 캠프마켓 부지의 정화작업 완료 후 조성될 공공시설·체육공원, 문화공원에 대한 시민시장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토론기획가는 몇 가지 원칙이 토론회 전체에 스며들도록 입체적으로 토론회를 설계했다.
 - ▶ 자신의 의견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입론
 - ▶ 성별과 연령의 위계를 벗어난 수평적·자율적 소통문화 보급
 - ▶ 우선할 인천형 소통정책 선정을 통해 정책참여 효능감 제고
- 토론을 돕기 위해 각종 ICT 시스템을 활용하였고, 토론참가자들은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 참여 만족도가 충족되었다.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화상회의 시스템(ZOOM) 활용
 - ▶ 웹토론 시스템: Google G-suite 기반의 실시간 의견 취합 및 분석 솔루션
 - ▶ 무선투표: 온라인 투표 방식을 활용한 실시간 무기명 투표
 - ▶ 오퍼레이터: 현장 의견 중앙화면 송출, 무선투표 진행, 화상회의 소그룹 회의화면 표출, 실시간 "인천시 유튜브" LIVE 송출
 - ▶ 분석(아젠다)팀: 현장 분석팀과 각각의 원탁에는 보안이 작동된 폐쇄형 서버-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사용, 실시간으로 퍼실리테이터가 토론 내용을 요약 전송하고 분석팀이 입론 내용의 핵심 사항에 대해 각각의 가치를 부여하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키워드 추출하고 참가자들의 의견 분석.

○ 토론 진행 과정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입론 : 참가자 1인당 1회(1분30초)의 의견 발표 - 퍼실리테이터는 발언자의 동의를 구한 후 결론과 구체적 이유를 기록하고 중앙서버로 전송 → 분석 퍼실리테이터는 텍스트마이닝 기법 사용, 키워드 분석 진행
- ▶ 상호토론 : 퍼실리테이터 주재 하에 진행하며, 입론에 대한 보충주장 및 반박토론 등을 자유롭게 진행
- ▶ 우선순위 투표 : 캠프마켓 부지 활용 방안 가운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온라인 투표양식 전송해 정책 결정

4. 퍼실리테이터 디자인

인천시민대토론회를 위해 사단법인 한국퍼실리테이터 연합회 소속의 인증 퍼실리테이터를 모집했다.

캠프마켓 내 잔디마당에 마련한 야외 스튜디오 원탁과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ZOOM에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한 후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22명의 퍼실리테이터가 토론 진행을 위해 참석하였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퍼실리테이터는 사전조사 내용, 캠프마켓에 대해 학습을 마친 후 토론회에 참석했다.

II. 토론 결과

1. 토론결과 요약과 해석

1)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공간 선호도

(단위: %)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공간 선호도 ¹⁾	사전 조사	토론 전 조사	토론	토론 후 조사	평균
1. 탄소중립형 생태공원	47.8	34.0	27.0	27.4	34.1
2. 역사보존 공간	18.1	27.2	22.7	22.1	22.5
3. 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14.5	28.2	32.6	25.8	25.3
4. 상업적 시설	10.1	1.0	3.5	1.6	4.0
5. 시민공동체 공간	5.1	3.9	5.7	12.1	6.7
6. 복합건강체육시설	3.6	2.9	5.7	6.3	4.7
7. 어르신 문화복지시설	0.7	1.9	2.8	3.2	2.1
8. 기타	-	1.0	-	1.5	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 시민의견 8가지는 고유한 번호로 명명했기에 응답선호도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표를 재배열하지 않고 번호순을 유지함.

이번 2022년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 결과는 토론 후 최종 조사에 응한 참가자들의 응답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캠프마켓 활용방안에 대한 조사에 참가한 인천시민 가운데 '탄소중립형 생태공원'을 가장 많은 27.4%가 선택했고 '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을 25.8%가 선택했다. '역사보존공간'을 22.1%가 선택했고 '시민공동체공간'을 12.1%가 선택했다. '복합건강체육시설'은 6.3%, '어르신 문화복지시설'은 3.2%, '상업적 시설'은 1.6% '기타'는 1.5%였다.

'탄소중립형 생태공원'은 사전조사(47.8%), 토론전 조사(34.0%), 토론 중(27.0%), 토론 후 조사(27.4%) 모두 일관되게 가장 많은 시민이 선택했다. 4차례에 걸친 조사를 평균하면 34.1%에 달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편인 '역사보존 공간'과 '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의 4차례 응답률 평균은 각각 22.5%와 25.3%였다. 나머지 5가지 형태의 공간 선호도를 평균하면 18.1%에 불과하여 위 세 가지 공간 선호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물론 현재 선호도가 낮다고 하여 향후 시민의 의견이 동일할 것이라는 가정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캠프마켓 활용방안으로 여러 공간의 적합성을 분석하는 작업은 추후 계속해야 할 일이다.

1-1)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시장 의견은?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민시장 의견	비율(%)
1. 탄소중립형 생태공원 1) 삶의 질 결정하는 자연생태공원 - 숲체험장, 쉼터, 산책로가 있고 철새와 함께하는 자연생태공원 - 물고기가 사는 시냇물과 사계절 꽃이 피는 (물향기수목원 같은) 식물원 /연꽃/야생화공원 - 인공 호수공원 2) 장애인 유도봉, 어린이/학생용 특화 놀이터,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도시정원 3) 부영공원에서 철마산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도시정원 4) 탄소배출제로(Zero) 공원	27.4

2. 역사보존 공간 1) 인천의 근현대사(일제 강점기/한국전쟁 미군주둔 군수시설)기록과 민주주의 기념을 위한 평화상징 역사공간 조성 - 학생들의 바른 역사교육(전쟁과 평화)을 위한 역사관, 교육 체험관 조성 (전시관, 문화역사 박물관) - (유네스코문화유산에 준하는) 세계적인 가치를 가진 조병창과 병원건물을 산 역사의 장으로 보존 (서대문형무소 같은) 2) 캠프마켓 일부 보존으로 역사적 의미와 인천의 정체성 보존 3) 캠프마켓 인천의 관광 특화명소로 확장 4) 용산미군부대와 이어지는 동수역 대중음악 선도 역사 보존	22.1
3. 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1) 지속적/정기적으로 크고작은 공연이 가능한 음악창작소 마련(부평 대표 축제 '풍물축제', 캠프마켓은 미국 재즈음악이 국내로 유입된 전초기지) 2) 글로벌한 예술회관 건립 3)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창작/전시/공연/VR체험공간 - 청소년용 비보이 공연장 4) 파주 헤이리마을 같은 다목적 교육문화공간 5) 무대장치 설치, 평생교육센터, 아동/청소년/어르신용 등 세대별 맞춤공간 6) 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체험공간 7) 스트레스 해소할 정신건강 생태숲명상센터	25.8
4. 상업적 시설 1) 청년 스타트업 공간 2) 시설 보존해 관광상품화하고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공간 3) 남녀노소 함께 즐길 먹거리/기념품 판매장(조양방직 같은 빵공장 리모델링한 체험용 카페, 굿즈 판매)	1.6
5. 시민공동체 공간 1) 시민 소통을 위한 시민회의실 2) 공동부엌 등 커뮤니티 공간 3) 전 연령 이용 가능한 시민 북카페 4) 넓은 공간을 활용한 주말 벼룩시장 5) 소외계층(어르신/청소년/1인가구 등)을 위한 힐링공간	12.1
6. 복합건강체육시설 1) 경제적 부담 적은 골프시설, 탁구, 에어로빅 이용 시설 2) 누구나 이용할 체육시설 공원	6.3
7. 어르신 문화복지시설 1) 실내외 어르신 공간 2) 노인성 질환 예방 운동 시설(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장) 3) 어르신 친목도모할 평생학습, 구직지원용 교육 공간	3.2
8. 기타	1.5
합계	100.0

‘캠프마켓 활용방안’을 토론주제로 한 이번 상반기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 참가자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에 관한 시민의견 가운데 가장 많은 27.4%가 동의한 ‘탄소중립형 생태공원’은 1) 삶의 질 결정하는 자연생태공원, 2) 장애인 유도봉, 어린이/학생용 특화 놀이터,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정원, 3) 부영공원에서 철마산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도시정원, 4) 탄소배출제로(Zero)공원 등의 의견으로 구분된다. 특히 ‘1) 삶의 질 결정하는 자연생태공원’에는 “숲체험장, 쉼터, 산책로가 있고 철새가 함께 하는 자연생태공원”과 “물고기가 사는 시냇물과 사계절 꽃이 피는 (물향기수목원 같은) 식물원/연꽃/야생화공원”이라는 열쇳말로 구체적인 조감도를 상상하게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5.8%의 인천시민이 ‘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²⁾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1) 지속적/정기적으로 크고작은 공연이 가능한 음악창작소 마련(부평 대표축제 ‘풍물축제’, 캠프마켓은 미국 재즈음악이 국내로 유입된 전초기지), 2) 글로벌한 예술회관 건립, 3) 시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창작/전시/공연/VR체험공간(청소년용 비보이 공연장), 4) 파주 헤이리마을 같은 다목적 교육문화공간, 5) 무대장치 설치, 평생교육센터, 아동/청소년/어르신용 등 세대별 맞춤공간, 6) 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체험공간, 7) 스트레스 해소할 정신건강 생태숲명상센터 등등의 구체적인 의견들이 포함된다.

22.1%의 시민시장장이 제안한 ‘역사보존 공간’은 1) 인천의 근현대사(일제 강점기/한국전쟁 미군주둔 군수시설) 기록과 민주주의 기념을 위한 평화상징 역사공간 조성, 2) 캠프마켓 일부 보존으로 역사적 의미와 인천의 정체성 보존, 3) 캠프마켓 인천의 관광특화명소로 확장, 4) 용산미군부대와 이어지는 동수역 대중음악 선도역사 보존 등의 공간을 가리킨다. 일제강점기에 무기를 조성하던 조병창이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남지 않았고 한국전쟁과 미군정기 시기에는 점령지의 군사시설을 그대로 사용한 미군의 공간사용방침 등의 역사적 사실을 후세대에게 교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를 보존하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12.1%가 동의한 ‘시민공동체 공간’³⁾ 관련 의견은 1) 시민 소통을 위한 시민회의실, 2) 공동부엌 등 커뮤니티 공간, 3) 전 연령 이용 가능한 시민 북카페, 4) 넓은 공간을 활용한 주말 벼룩시장, 5) 소외계층(어르신/청소년/1인가구 등)을 위한 힐링공간 등으로 구분된다.

2) ‘문화’를 ‘Culture’의 번역어로 이해할 때 ‘자연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가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창조해 낸 것’을 의미하므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유무형의 산물을 포함한다면 (인위적으로 만든) 자연생태공원, 역사보존 공간, 상업시설, 시민공동체공간, 복합건강체육시설, 어르신 문화복지시설 등도 문화 공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 대목에서는 좁은 의미로 ‘예술’과 ‘교육’에 한정하여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시민의견을 묶었음을 밝혀둔다.

3) 2018년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시 공동체공간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공동체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사회적유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물리적 거점’으로 규정한다. 이번 인천시민시장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구조화할 때 사용한 ‘시민공동체 공간’이라는 개념어구는 앞서 기술한 서울시의 ‘공동체공간’의 개념에 준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보다는 시민 사이의 유대를 형성하는 활동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담기 위해 ‘시민공동체 공간’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6.3%가 동의한 '복합건강체육시설'로는 1) 경제적 부담 적은 골프시설, 탁구, 에어로빅 이용 시설, 2) 누구나 이용할 체육시설 공원 등이 포함된다. '체육시설' 가운데 어르신이 이용할 체육시설은 3.2%가 동의한 '어르신 문화복지시설'로 따로 모았다. '어르신 문화복지시설'에는 1) 실내외 어르신 공간, 2) 노인성 질환 예방 운동 시설(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장), 3) 어르신 친목도모할 평생학습, 구직지원용 교육 공간 등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1.6%가 동의한 '상업적 시설'로는 1) 청년 스타트업 공간, 2) 시설 보존해 관광상품화하고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공간, 3) 남녀노소 함께 즐길 먹거리/기념품 판매장(조양방직 같은 빵공장 리모델링한 체험용 카페, 굿즈 판매) 등이 제안되었다.

토론 전 조사 때 참가자에게 발송한 조사문항과 동일한 문항으로 토론 후 조사를 실시하였더니 1.5%의 응답자가 '8. 기타'를 선택했다. 토론을 마친 후 최종 조사 때 위에 제안된 공간 외 다른 공간을 제안한 참가자가 있다는 점을 짚어둔다.

2)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단위: %)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인식		토론 전 조사		토론 후 조사	
조성단계	공익목적 달성	79.6	10.7	83.1	17.9
	특색있는 공원		19.4		23.2
	시민참여형 공원		49.5		42.0
운영단계	공익목적 달성	10.7	2.9	11.6	1.1
	특색있는 공원		2.9		1.0
	시민참여형 공원		4.9		9.5
관리단계	공익목적 달성	9.7	1.9	5.3	0.0
	특색있는 공원		2.9		0.0
	시민참여형 공원		4.9		5.3
합계		100.0	100.0	100.0	100.0

캠프마켓 활용방안 가운데 장고개로 남쪽지역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때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하길 바라는지 조사한 결과 참가자 대다수(83.1%)는 조성단계부터 역할을 하길 바랬고 공원의 성격은 '시민참여형 공원'(42.1%) → '특색있는 공원'(23.2%) → '공익목적 달성'(17.9%) 순으로 규정했다.

공원조성과 관련한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사를 반복할수록 '조성단계'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운영단계나 관리단계보다는 조성단계에서 시민의견을 반영하길 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Ⅲ. 토론 전·후 인식 조사 결과

1. 토론 전 인식 조사 결과

1) 성별

성별	비율(%)	
1. 여성	71.8	
2. 남성	28.2	
합계	100.0	

2) 연령대

연령대	비율(%)	
1) 20대	1.9	
2) 30대	1.9	
3) 40대	13.6	
4) 50대	30.1	
5) 60대	40.8	
6) 70세 이상	11.7	
합계	100.0	

3) 캠프마켓의 역사적 가치

캠프마켓의 역사적 가치	비율(%)
1) 매우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55.3
2)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22.3
3) 다소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13.6
4) 다소 낮은편이라고 생각한다	3.9
5)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1.0
6) 매우 낮은편이라고 생각한다	3.9
합계	100

4)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공간 선호도

(단위: %)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공간 선호도	토론 전 조사(%)
1. 탄소중립형 생태공원	34.0
2. 역사보존 공간	27.2
3. 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28.1
4. 상업적 시설	1.0
5. 시민공동체 공간	3.9
6. 복합건강체육시설	2.9
7. 어르신 문화복지시설	1.9
8. 기타	1.0
합계	100.0

5)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단위: %)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인식		토론 전 조사	
조성단계	공익목적 달성	79.6	13.4 ⁴⁾
	특색있는 공원		24.4
	시민참여형 공원		62.2
	소계		100.0
운영단계	운영단계		
	공익목적 달성	10.7	27.3
	특색있는 공원		27.2
	시민참여형 공원		45.5
	소계		100.0
관리단계	관리단계		
	공익목적 달성	9.7	20.0
	특색있는 공원		30.0
	시민참여형 공원		50.0
	소계		100.0
합계		100.0	

4) 조성단계 79.6%를 100%로 환산한 후 '공익목적달성'을 선택한 참가자의 비율을 계산함. 이하 소계별 세부 비율은 모두 이와 같이 환산한 비율.

2. 토론 후 인식 조사 결과

1)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공간 선호도

(단위: %)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공간 선호도	토론 후 조사
1. 탄소중립형 생태공원	27.4
2. 역사보존 공간	22.1
3. 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25.8
4. 상업적 시설	1.6
5. 시민공동체 공간	12.1
6. 복합건강체육시설	6.3
7. 어르신 문화복지시설	3.2
8. 기타	1.6
합계	100.0

2)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단위: %)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시민의 역할에 대한 인식		토론 후 조사	
조성단계	공익목적 달성	83.1	21.5
	특색있는 공원		27.8
	시민참여형 공원		50.7
	소계		100.0
운영단계	공익목적 달성	11.6	9.1
	특색있는 공원		9.1
	시민참여형 공원		81.8
	소계		100.0
관리단계	공익목적 달성	5.3	0.0
	특색있는 공원		0.0
	시민참여형 공원		100.0
	소계		100.0
합계		100.0	

IV. 토론

- ▶ 2022년 상반기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는 '단절에서 개방을, 개방에 소통을 더하다! 우리 품에 캠프마켓!'을 표제 삼아, 캠프마켓이 어떤 공간들로 조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주장을 펴고 전체 참가자가 주장을 마칠 때까지 경청하도록 참가자들에게 토론조건을 제시하였다.
- ▶ 토론이 시작되고 참가자들은 1분30초 동안 한 가지 공간 활용방안을 선택한 후, 그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는 입론 시간을 가졌다. 이 때 참가자들이 이유 혹은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에 의해 유도되었다.
- ▶ 테이블의 모든 참가자들은 입론을 마치고 참가자의 의견을 전체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 전까지 입론된 내용 혹은 그 외의 궁금증에 대해 테이블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에 따라 상호토론을 진행하였다.
- ▶ 전체토론 시간에 다른 테이블 참가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참가자들은 입론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참가자 모두 구글 설문양식을 사용하여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 최종 투표했다.
- ▶ 토론회에 참가 신청을 하였지만 코로나 확진, 검사 등으로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참가자는 온라인(ZOOM)으로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1) 입론·상호토론 결과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공간 선호도	비율(%)
1. 탄소중립형 생태공원	27.0
2. 역사보존 공간	22.7
3. 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32.6
4. 상업적 시설	3.5
5. 시민공동체 공간	5.7
6. 복합건강체육시설	5.7
7. 어르신 문화복지시설	2.8
합계	100.0

2) 입론·상호토론 주요 내용

○ 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 매뉴얼을 문화공원 조성 시에도 반드시 지켜달라. 비장애인만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게 세심한 시설물 설치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이 잡고 산책할 수 있는 봉 설치 등이 있겠다.”

“환경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인천시에서 필요한 부분과 올바른 땅사용을 위해서 지하에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인천에 쓰레기 매립지 견학을 가봤지만 매립지 조성이 안 되어 있다. 하남시(에코랜드)는 지하를 이용해 매립지를 만들고 지상은 공원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 역사보존 공간

“거시적인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캠프마켓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조병창 및 병원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보존되어야 한다. 둘째, 침탈의 역사를 알리고 그것을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무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후손들에게 중요한 산 역사의 장으로 학습효과를 고취한다. 넷째, 유네스코 유산 등재 얘기가 나올 만큼 귀중한 유산이다. 전 국민이 인천 캠프마켓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한다.”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한 발상지 부분을 찾아보고, 왜 이 부평에 군수시설이 생겼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인천에 오게 되면,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의 대표 관광요소, 특화 명소로 만들어 보자.”

○ 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인천에는 음악회 개최 횟수와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공간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원한다. 청각적으로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장애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음악공간이 더 간절하다.”

“예술을 접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가거나 송도(인천 남부)쪽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 접근성을 위해서 실내 공연장이 필요하다. 음악회, 연극 등을 다양하게 열릴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 상업적 시설

“외부사람들이 캠프마켓에 머무를 수 있는 관광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캠프마켓의 역사적인 시설들을 잘 보존하고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주변의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면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 시민공동체공간

“기존건물을 그대로 활용해서 역사를 알 수 있는 공간 및 지역주민들 간에 소통이 일어나는 장소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주민회의실, 공동부엌,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및 북카페가 생기면 좋겠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공간).”

○ 복합건강체육시설

“젊은세대가 음지에 많이 모인다. 양지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부평의 핵심구역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민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내 중심시설이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것이다.”

○ 어르신 문화복지시설

“노령층이 많다. 노인성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 야구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면서 병원가는 횟수가 줄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들에게 배려하는 운동이 많지 않은 편이다.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면 좋겠다.”

○ 시민참여

“조성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이러한 공청회를 열어서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 입론·상호토론 투표결과 비교

(단위: %)

캠마켓 문화공원 조성공간 선호도	토론 전 조사	토론 후 조사
1. 탄소중립형 생태공원	27.0	27.4
2. 역사보존 공간	22.7	22.1
3. 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32.6	25.8
4. 상업적 시설	3.5	1.6
5. 시민공동체 공간	5.7	12.1
6. 복합건강체육시설	5.7	6.3
7. 어르신 문화복지시설	2.8	3.2
8. 기타	0.0	1.6
합계	100.0	100.0

V. 부록

1. 사전조사와 일반시민조사 결과 비교

1-1. 응답자 특성 비교

		응답자 특성표	
		토론참가예정자(%)	일반시민(%)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34.8	50.9
	여성	65.2	49.1
연령별	20대	0.7	17.8
	30대	4.3	18.4
	40대	14.5	22.0
	50대	39.1	23.2
	만 60세 이상	41.4	18.6
권역별	중부권	16.7	20.5
	남부권	28.3	32.0
	동부권	36.3	29.1
	서부/도서권	18.8 ⁵⁾	18.5
인천시 거주기간	1년 미만	0.0	1.3
	1~5년 미만	2.2	7.6
	5~10년 미만	2.9	11.0
	10~20년 미만	9.4	20.0
	20~30년 미만	21.7	25.7
	30~40년 미만	26.8	19.0
	40년 이상	37.0	15.3
직업	자영업/개인사업	13.8	8.5
	판매/영업/서비스직	4.3	8.5
	생산/기능/노무직	2.2	11.3
	사무/관리/전문직	37.0	40.5
	농림축산업	2.2	0.0
	전업주부	23.2	12.8
	학생	1.4	5.6
	무직/퇴직/기타	15.9	12.9

* 중부권: 중구, 동구, 미추홀구 / 남부권: 연수구, 남동구 / 동부권: 부평구, 계양구 / 서부·도서권: 서구, 강화군, 옹진군

* 사례수 적을 경우(30개 미만)는 해석 시 주의 필요

5) 응답자 가운데 거주지가 인천시 외인 응답자 0.7%를 포함한 수치임.

- 응답자 특성을 성별로 비교할 때 토론참가예정자 가운데 여성의 응답률이 남성의 응답률보다 더 높다. 일반시민은 남성 50.9%, 여성 49.1%로 응답률이 거의 같다.
- 일반시민은 연령별 응답률이 비교적 균등하지만 토론참가예정자의 응답률은 2030세대가 5060세대에 비해 매우 낮다. 토론참가예정집단의 경우 고령층의 의견이 과다대표 되었을 수 있다. 인구구조 상 60대 이상 고령인구는 늘고 있고 60대 이하 인구는 줄고 있기 때문이므로 2030세대의 의견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
- 지역별로 보면 두 조사 모두 중부권과 서부권의 응답률이 남부권과 동부권의 응답률보다 약간 더 낮다. 캠프마켓 부지와의 거리, 지역적 친밀성 유무에 따라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응답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사이의 차이를 감안해 여론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주기간별로 보면 토론참가예정자는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응답률이 낮고 일반시민은 10년 미만 거주자의 응답률이 그 이상 거주자의 응답률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지만 이는 인천시 유입인구가 2014년부터 매년 1% 이하로 줄었기 때문이다.
- 직업별로 보면 토론참가예정자 가운데 농림축산업의 응답률이 2.2%이고 일반시민의 응답률은 0%이다. 캠프마켓 활용방안에 관한 농림축산업 종사자의 의견은 별도의 조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토론참가예정자 가운데 학생(1.4%), 생산/기능/노무직(2.2%)의 응답률이 다른 직업에 비해 낮은 편이고 판매/영업/서비스직(4.3%)의 응답률 역시 자영업/개인사업(13.8%)이나 전업주부(23.2%), 사무/관리/전문직(37.0%)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반시민 가운데 사무/관리/전문직(40.5%)의 응답률이 가장 높고 응답이 없는 농림축산업을 제외하면 학생(5.6%)의 응답률이 가장 낮다.
- 종합하면 이번 조사는 성별로는 여성이 과다대표 되었을 수 있고 연령별로는 2030세대가 과소대표되었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중부와 서부도서권이 과소대표 되었을 수 있고 직업별로는 농림축산업, 학생, 생산/노무/기술직의 의견이 과소대표 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례수가 적은 의견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추가 조사를 통해 보완한다면 인천시민의 여론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단, 이 보고서에서는 정량조사와 정성조사의 장점을 취해 조사결과를 해석하였음을 밝혀 둔다.

1-2. '캠프마켓' 인지도 비교

(단위 : %)

인지도	인지 (①+②)	비인지 (③+④)	① 매우잘알고 있는편이다	② 대체로알고 있는편이다	③ 대체로모르는 편이다	④ 전혀모르는 편이다
일반시민	25.0	75.0	3.4	21.6	31.1	43.8
토론참가예정자	45.7	54.3	18.8	35.5	26.1	19.6

- '캠프마켓'의 역사에 대해 아느냐는 질문에 일반시민은 25.0%가 안다고 응답했고 토론참가예정자는 45.7%가 안다고 응답했다. 토론주제에 대해 인지하고 토론회 참가를 신청한 시민의 인지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 바꿔말하면 일반적인 인천시민 100명 가운데 25명 정도가 '캠프마켓'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토론참가예정자 100명 가운데 46명 정도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캠프마켓' 개방 후 방문 경험 유무 비교

(단위 : %)

방문경험 유무	유 (①+②)	무 (③)	① 한두번방문한 경험이있다	② 여러차례방문한 경험이있다	③ 전혀방문한 경험이없다
일반시민	15.2	84.8	11.7	3.5	84.8
토론참가예정자	36.2	63.8	17.4	18.8	63.8

- '캠프마켓' 개방 후 방문 경험의 유무를 물었을 때 일반시민의 15.2%가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토론참가예정자의 36.2%가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 바꿔말하면 일반적인 인천시민 100명 가운데 15명 정도가 '캠프마켓'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토론참가예정자 100명 가운데 36명 정도가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캠프마켓' 방문·인식 경로

(단위 : %)

방문경험 유무	일반시민	토론참가 예정자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	12.8	7.2
신문기사	29.2	18.8
시정 또는 구정 홍보지	11.3	14.5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6.7	28.3
기타	40.0	31.2

- '캠프마켓' 방문·인식 경로를 물었을 때 일반시민의 29.2%는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고, 12.8%는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11.3%는 '시정 또는 구정 홍보지'를, 6.7%는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토론참가예정자의 28.3%는 '관련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고, 18.8%는 '신문기사'를, 14.5%는 '시정 또는 구정 홍보지'를, 7.2%는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 한편 일반시민 가운데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의 대다수는 '(캠프마켓) 모름'이라고 개방형 문항에 기입했고 드물게 '(인근 거주) 지나가다 봄', '지인의 소개', 'TV', '인터넷', '유튜브', 'SNS', '설문참여로' 등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이에 비해 토론참가예정자의 31.2%가 '기타'를 선택했는데 이 가운데 37.2%는 "토론회 안내 연락을 통해 처음 들었다", 30.2%는 "근처 거주, 과거 거주" 등으로 답했고 32.5%는 "주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 종합하면 일반시민의 정보접근경로로 '신문기사'가 가장 많았고 토론참가예정자의 경로로는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가 가장 많았다.

1-5.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

문화공원 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	일반시민	토론참가 예정자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	25.3	14.5
역사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한 보존과 활용의 균형	31.2	31.2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소통·배움 장소 역할	35.4	32.6
공원 조성 전 과정의 실질적인 시민 참여	7.2	19.6
기타	0.8	2.2

-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인식을 비교하면 일반시민의 35.4%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소통·배움 장소 역할'을 해주길 원했고 토론참가예정자의 32.6%가 같은 응답항목을 선택하여 두 조사대상집단 모두 같은 욕구를 가진 응답자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응답항목은 '역사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한 보존과 활용의 균형'이다. 일반시민의 31.2%, 토론참가예정자의 31.2%가 역사성 보존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한 응답항목은 두 조사대상 집단별로 의견이 달랐다.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선택한 일반시민이 25.3%인데 비해 토론참가예정자는 14.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토론참가예정자 집단이 세 번째로 높게 꼽은 중요 항목은 '공원 조성 전 과정의 실질적인 시민참여'이다.

1-6. 북쪽 공공청사·체육시설 부지 입지시설 선호도 비교

(단위 : %)

북쪽 공공청사·체육시설 부지 입지시설 선호도	일반시민	토론참가 예정자
공공청사 -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9.0	7.2
문화시설 -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등	32.7	42.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도서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26.8	26.1
상업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8.4	5.8
체육시설 -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등	22.4	15.2
기타	0.9	3.6

- 공공청사·체육시설 부지에 어떤 시설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의 32.7%가 문화시설을 선호했고, 토론참가예정자의 42.0%가 같은 문화시설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등의 문화시설이 입지될 때 가장 많은 시민이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두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 시설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다. 학교, 도서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의 선호도가 높다. 일반시민의 26.8%, 토론참가예정자의 26.1%가 선택했다.
- 세 번째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 시설은 '체육시설'이다. 일반시민의 22.4%, 토론참가예정자의 15.2%가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네 번째는 공공청사(일반시민 9.0%, 토론참가예정자 7.2%), 다섯 번째는 상업시설(일반시민 8.4%, 토론참가예정자 5.8%)이다.
- 북쪽 공공청사·체육시설 부지에 들어설 입지시설 선호도 조사문항은 두 조사대상 집단 모두 동일한 조사결과를 얻었다.

1-7. 남쪽 문화공원 부지 조성공간 선호도 비교

(단위 : %)

남쪽 문화공원 부지 조성공간 선호도	일반시민	토론참가 예정자
자연생태 공간- 도시숲, 정원, 산책로, 피크닉장 등	52.0	47.8
음악, 예술 등 문화공간 - 창작, 전시, 공연장 등	12.9	14.5
커뮤니티 공간 - 지역주민 복합문화공간, 지역공동체 활동 등	8.9	5.1
건강증진 공간 -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6.4	4.3
역사 체험·교육 공간 - 근대건축물, 박물관, 역사체험·전시 등	11.8	18.1
지역특화 공간 -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7.0	10.1
기타	1.0	0.0

- 남쪽 문화공원 부지에 조성할 공간 선호도를 물었을 때 두 조사대상집단 모두 '자연생태 공간'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일반시민의 52.0%, 토론참가예정자의 47.8%가 '자연생태 공간'을 꼽았다.
- 일반시민의 두 번째 선호공간은 '음악, 예술 등 문화공간'이었다. 창작, 전시, 공연장 등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공간의 필요성을 북쪽 공공청사·체육시설 부지의 시설 선호와 유사한 순위로 응답한 셈이다. 이에 비해 토론참가예정자들은 18.1%가 '역사체험·교육공간'을 선호했다. 일반시민의 11.8%가 '역사체험·교육공간'을 선호했는데 우선순위 상으로는 세 번째를 차지한다. 토론참가예정자의 14.5%가 '음악, 예술 등 문화공간'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두 집단의 2, 3번째 선호 공간이 서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응답항목들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 일반시민의 '커뮤니티 공간', '지역특화 공간', '건강증진 공간' 등의 선호도는 각각 8.9%, 7.0%, 6.4% 순으로 낮아졌고, 토론참가예정자의 '커뮤니티 공간', '지역특화 공간', '건강증진 공간' 선호도는 각각 5.1%, 10.1%, 4.3%로 나타났다.
- 조성가능한 공간의 예시로 제시된 응답항목 가운데 자연생태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2. 사전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2 년 3 월 16 일(수)~3 월 18 일(금), (3 일)
- 조사대상 : 토론회 참가 신청자 172 명 중 138 명(응답률 80.2%)
- 조사내용 : - 인구사회학적 조사: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군, 거주기간
 - 캠프마켓 역사와 개방 및 반환 과정에 대한 인식과 세부사항
 - 캠프마켓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과 세부사항
 - 토론회 참석여부 및 장애여부 등 추가 준비사항 조사
- 조사방법 : 참가자 대상 1:1 전화조사
- 분석방법 : 개별 의견의 키워드 추출 및 상향식 구조화

※ 주의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9% 또는 100.1%가 될 수 있음. 이는 소수점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음.

1) 사전조사 결과 분석

A. 인구사회학적 조사

1. 성별

구분	비율(%)
여성	65.2
남성	34.8
합계(명)	100.0

2. 연령대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합계
비율(%)	0.0	0.7	4.3	14.5	39.1	34.1	7.2	100.0

3. 거주지역

구분	1) 중구	2) 동구	3) 미추홀구	4) 연수구	5) 남동구	6) 부평구
비율(%)	5.1	2.9	8.7	13.0	15.2	25.4
구분	7) 계양구	8) 서구	9) 강화군	10) 옹진군	11) 기타	합계
비율(%)	10.9	15.9	0.7	1.4	0.7	100.0

4. 종사하는 직업군

구분	1)자영업/개인사업	2)판매/영업/서비스직	3)생산/기능/노무직	4)사무/관리/전문직	5)농림/축산업	6)전업주부	7)학생	8)무직/퇴직/기타	합계
비율(%)	13.8	4.3	2.2	37.0	2.2	23.2	1.4	15.9	100.0

5. 인천거주기간

구분	1) 1년 미만	2) 5년 미만	3) 10년 미만	4) 20년 미만	5) 30년 미만	6) 40년 미만	7) 40년 이상	합계
비율(%)	0.0	2.2	2.9	9.4	21.7	26.8	37.0	100.0

B. 캠프마켓 역사와 개방 및 반환 과정에 대한 인식과 세부사항

B1. 귀하는 캠프마켓의 역사를 어느정도 알고 계신가요?

캠프마켓 인지 여부	비율(%)
1) 매우 잘 알고 있는 편이다	18.8
2)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35.5
3)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26.1
4) 전혀 모르는 편이다	19.6
합계	100.0

B2. 귀하는 현재 개방된 캠프마켓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캠프마켓 방문 경험 유무	비율(%)
1) 한두번 방문한 경험이 있다	17.4
2) 여러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다	18.8
3) 전혀 방문한 경험이 없다	63.8
합계	100.0

B3. 직접 방문하거나 알고 계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방문, 인식 경로	비율(%)
1)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	7.2
2) 신문기사, 뉴스, 구정메세지	18.8
3) 시청 또는 구청 홍보물, 시의회 홍보물	14.5
4)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28.3
5) 주변인 통해(주민자치회, 새마을회, 부녀회, 통장, 택시기사, 단체활동 등)	10.1
6) 캠프마켓 근처 거주, 옛날에 살던 곳	11.6
7) 방문한 적 없다. 토론회 안내 연락 통해 처음 알았다	9.4
합계	100.0

C. 캠프마켓 활용방안 인식조사

C1. 인천시는 캠프마켓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율(%)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소통·배움 장소 역할	32.6
역사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한 보존과 활용의 균형	31.2
공원 조성 전 과정의 실질적인 시민 참여	19.6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	14.5
기타(토지정화사업, 인천의 랜드마크 공원)	2.2
합계	100.0

D. 캠프마켓 활용 방안 인식조사

캠프마켓 지구단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고개로 기준 북쪽 지역은 2009년 부평구민 대상 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공청사(경찰서, 소방서)와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장고개로 기준 남쪽 지역은 2017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공원 주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인천시는 2019년 12월 캠프마켓 반환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자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D1. 기존 계획된 도시계획 시설 중 장고개로 북측에 계획된 시설인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부지에 어떤 시설이 입지되면 좋을까요?

북쪽 공공청사 체육시설 부지 입지시설 선호도	비율(%)
문화시설 -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등	42.0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도서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26.1
체육시설 -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등	15.2
공공청사 -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7.2
상업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5.8
기타(공원확대, 건강증진시설, 청소년수련관)	3.6
합계	100.0

D1-1. 위와 같이 답변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방형)

북쪽 공공청사 체육시설 부지 입지시설 선호도 이유	비율(%)
1. 인천에 부족한 잘 구성된 다목적 문화 예술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미술관, 크고 작은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공원 - 턱없이 부족한 전문공연장 문제 해소할 수 있는 기회(팝송공연, 뮤지컬 공연 등) - 지역 문화인들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문화 갈증을 해소 할 수 있는 기회 - 버스킹 할 공간도 찾기 어려운 인천의 열악한 문화활동 문제 해소 - 복합문화전시장(예: 킨텍스) - 청년들이 즐길 공간 필요 	37.7
2. 청소년, 영유아를 위한 통합 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색맞추기식 교육시설이 아닌 제대로된 교육시설과 연구시설 유치 - 접근성 용이하도록 도서관 건립 -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교육시설 - 공부도하고 휴식도 하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18.8
3. 시민의 힐링과 건강 증진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우울증 해소 -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 동호회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가능한 체육시설 - 주변에 운동기구는 있으나 다양하지 않다(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15.2
4. 인구에 비해 부족한 공공시설과 야간 주차문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필요 - 오래된 행정복지센터 확장 	10.1
5. 초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어르신 문화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층을 위한 복지시설 - 부족한 복지시설(가정요양) - 경로당도 이용못하는 요즘 노인들은 갈곳이 없다 	7.2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상업적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자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과 캠프마켓의 역사적의미를 알릴 수 있는 상업시설(굿즈판매 등) 	4.3
7. 캠프마켓 역사성을 보존하는 역사문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 침략 역사를 증명할 유일한 유적임으로 이를 기억할 박물관 건립 - 시민들의 역사적 인식 개선 - 인천조병창, 캠프마켓의 유래와 역사에 대한 교육과 연구필요 - 이 지역의 세계적인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 - 일제에 희생당한 분들을 기릴 수 있는 공간 	3.6
8. 시민과 지역주민, 청년을 위한 공동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작은 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 - 청년들이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도록 공간만 제공 	2.2
9. 인천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으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호수공원으로 확대 조성 	0.7
합계	100.0

D2. 캠프마켓 남쪽부지는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문화공원 부지에 어떤 공간이 조성되기를 원하십니까?

남쪽 문화공원 부지 조성공간 선호도	비율(%)
자연 생태 공간- 도시숲, 정원, 산책로, 피크닉장 등	47.8
역사 체험·교육 공간 - 근대건축물, 박물관, 역사 체험·전시 등	18.1
음악, 예술 등 문화공간 - 창작, 전시, 공연장 등	14.5
지역특화 공간 -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10.1
커뮤니티 공간 - 지역주민 복합문화공간, 지역공동체 활동 등	5.1
건강증진 공간 -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4.3
합계	100.0

D2-1. 위와 같이 답변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개방형)

남쪽 문화공원 부지 조성공간 선호도 이유	비율(%)
1. 인천을 대표하는 탄소중립형 숲, 생태공원으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공도 공원은 자연(생태) 조성이 우선 - 신선한 공기 마시며 휠체어나, 유모차도 함께 다닐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조성 - 누구나 쉽게 접근/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주변 부평공원과 연계해서 개발 - 인천의 센트럴파크(가족이 피크닉 갈 수 있는 공원)로 조성 -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47.8
2. 캠프마켓 역사성을 보존하는 역사문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격차를 없앨 수 있는 공간 - 지역의 근대역사 홍보의 공간(지역에 오래 살았지만 처음 알았다) - 인천의 정체성을 알릴 체험 공간 - 학생들에게 일제강점기와 분단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예: 서대문형무소) 	18.1
3. 인천에 부족한 잘 구성된 다목적 문화 예술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도시 부평(인천)의 랜드마크가 될만한 공연장, 창작공간(예: 파주 헤이리마을) - 대규모 공간보다 소규모 문화공간 조성 -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문화공간 조성 - 시민들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문화공간 - 서울로 안 가도 되는 인천의 공연장 	14.5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상업적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성 연계한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 타 지역에서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개발 - 인근 부평지하상가와 연계한 명소 -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관광 소비를 인천으로 이끌 소비콘텐츠 	10.1
5. 시민과 지역 주민, 청년을 위한 공동체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지역 주민들의 배움의 장소 - 친목 도모 커뮤니티 공간 - 아동, 청년, 여성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 복합 문화공간 	5.1
6. 시민의 힐링과 건강 증진을 위한 복합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회가 아닌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배드민턴, 농구장 등 조성 - 인근에 복합 체육 시설이 없다 - 시니어들의 건강 관리하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건강 시설 및 프로그램 -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야구장/농구장/테니스장 등 	3.6
7.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어르신 문화복지시설	0.7
합 계	100.0

A. 인구 사회학적 조사

- 1) 여성

2) 남성

- 1) 10대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7) 70세 이상

- 1) 중구 2) 동구 3) 미추홀구 4) 연수구
5) 남동구 6) 부평구 7) 계양구 7) 서구
9) 강화군 10) 옹진군 11) 기타

- 1) 자영업/개인사업 2) 판매/영업/서비스직 3) 생산/기능/노무직
4) 사무/관리/전문직 5) 농림/축산업 6) 전업주부
7) 학생 8) 무직/퇴직/기타

- 1) 1년 미만 2) 5년 미만 3) 10년 미만
4) 20년 미만 5) 30년 미만 6) 40년 미만
7) 40년 이상

-캠프마켓 유래 안내(퍼실리테이터 참고)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1939년부터 인천육군조병창(군수공장)으로, 1945년 광복 후에는 미국 육군의 군수기지(ASCOM)로 사용되었다가 1996년 이후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되었고,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캠프마켓 A,B구역이 반환되었고, 2022년에는 나머지 D구역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토양오염 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화가 완료되면 역사가 어우러진 인천시민의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 캠프마켓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B1. 귀하는 캠프마켓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 | | |
|-------------------|------------------|
| 1) 매우 잘 알고 있는 편이다 | 2)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
| 3)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 4) 전혀 모르는 편이다 |

B2. 귀하는 현재 개방된 캠프마켓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1) 한두번 방문한 경험이 있다.
- 2)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다
- 3) 전혀 방문한 경험이 없다

B3. 직접 방문하거나 알고계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 | |
|------------------|--------------------|
| 1)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 | 2) 신문기사 |
| 3) 시정 또는 구정 홍보지 | 4)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
| 5) 기타 | |

C. 캠프마켓 조성 원칙

C1. 인천시는 캠프마켓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시 가장 중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
- 2) 역사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한 보존과 활용의 균형
- 3)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소통·배움 장소 역할
- 4) 공원조성 전 과정의 실질적인 시민 참여
- 5) 기타 ()

D. 캠프마켓 활용 방안 인식 조사

-캠프마켓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개요(퍼실리티 이터 참고)

캠프마켓 지구단위계획은 장고개로를 기준으로 북쪽부분은 2009년 부평구민 대상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청사(경찰서, 소방서)와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부지활용이 결정되었고,

남쪽부분은 2017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공원주제가 변경되었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2019년 12월 캠프마켓 반환이후 변화된 지역여건을 반영하고자 이전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D1. 기존 계획된 도시계획 시설 중 장고개로 북측에 계획된 시설인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부지에 어떤 시설이 입지되면 좋을까요?

- 1) 공공청사 -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 2) 문화시설 -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등
-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도서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 4) 상업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5) 체육시설 -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등
- 6) 기타()

D1-1. 위와 같이 답변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개방형)

D2. 캠프마켓 남쪽부지는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문화공원 부지에 어떤 공간이 조성되기를 원하십니까?

- 1) 자연 생태 공간 - 도시 숲, 정원, 산책로, 피크닉장 등
- 2) 음악, 예술 등 문화 공간 - 창작, 전시, 공연장 등
- 3) 커뮤니티 공간 - 지역주민 복합문화공간, 지역공동체 활동 등
- 4) 건강증진 공간 -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 5) 역사 체험·교육 공간 - 근대건축물, 박물관, 역사 체험·전시 등
- 6) 지역특화 공간 -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7) 기타 ()

D2-1. 위와 같이 답변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개방형)

E. 기 타

E1. 귀하께서는 3월 31일(목) 오후2시, 캠프마켓 내 잔디마당에서 진행되는 인천시민시장대토론회에 참여하십니까?

- 1) 참석 2) 불참

- 참가자 안내-

토론회 참여 신청 후 코로나 확정 혹은 건강이 안 좋거나 토론회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경우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코리아스픽스]를 검색하시면 1:1 안내 가능합니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3. 토론 참가자 입론 내용(Raw data)

T/N	이름	소통정책	입론 내용
1	정*자	6.복합건강체육시설	시민을 위한 거룩한 땅이다. 이 넓은 곳 중 일부를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어른을 보호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 산책,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길 바란다.(놀이공원, 쉼터, 산책로 등으로 조성)
1	김*선	2.역사 보존공간	역사가 있는 공간이다. 미군부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품은 공간이 남아 있으면 좋겠다. 전시가 가능한 인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역사관)
1	강*대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많은 공간에 필요한 공원으로 많은 활용이 필요하다. 필요한 몇 개의 공간만 보존하고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1	강*대	7.어르신 문화복지시설	노령층이 많다. 노인성 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 야구장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운동하면서 병원가는 횟수가 줄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들에게 배려하는 운동이 많지 않은 편이다.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면 좋겠다.
1	김*선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연극, 음악회 등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로 조성되면, 아이들의 교육과 체험으로 아이들의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엄마는 운동하고, 취미활동하고, 아이들은 책 보고, 연극과 음악회를 볼 수 있는 공간)
1	김*미	7.어르신 문화복지시설	부평구에 거주합니다.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이 남동구, 강화에는 있습니다. 부평구에 그라운드 골프장이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2	신*주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여기는 역사에 아픔이 있는 공간이므로 모두 철거하고 숲이 있는 호수공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복개천 구청구간에 생태공원과 연결하여 호수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
2	박*한	2.역사 보존공간	최소한이라도 역사보존했으면 좋겠다.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2	이*숙	2. 역사 보존공간	군인기지가 개방된 것도 오늘에야 알았다. 우리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역사관을 해놓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2	마*남	2.역사 보존공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쉼과 문화와 교육이 있는 역사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
2	신*국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수집된 공간은 미니어처를 보여주면 된다. 역사는 아픔이다. 복개천 공사구간 연계해서 글로벌하게 호수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2	마*남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기존의 공원과 차별화된 아이콘 공간으로 캠프마켓 현장성으로 사진 영상 통해 보존하면 좋겠다. 박물관도 있지만 현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여 해체하는 부분 포함 영상, 파노라마 등 부평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찾아 이루어지면 좋겠다.
2	이*숙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예술회관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상징으로 외국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예술의 전당같은 시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다양한 문화를 인천에서 접할 수 있도록...
2	박*한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최소한의 역사공간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생태공원으로 만들자. 많이 걷는 편인데 복개천과 연계해서 물이 흐르고 생태계가 보존된, 역사가 함께 흐르는 생태공간이 있어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

T/N	이름	소통정책	입론 내용
3	박*숙	6.복합건강체육시설	서구에 살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그 중에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도 오전 6시~9시까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한다. 부평에는 그라운드 골프 시설이 전혀 없다.
3	배*임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생태 자연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영공원에서 철마산까지 연계시킨 도시정원(숲체험, 동식물체험관 등이 포함된)을 만들어 국제화된 테마를 가진 생태공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친환경 도시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3	고*정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환경적으로 미래를 봤을때 인천시에서 필요한 부분과 올바른 땅사용을 위해서 지하에 쓰레기 매립지를 만들어 활용해야 한다. 인천에 쓰레기 매립지 견학을 가봤지만 매립지 조성이 안 되어 있다. 하남시(에코랜드)는 지하를 이용해 매립지를 만들고 지상은 공원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3	연*영	5.시민 공동체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길 바란다.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주말에는 벼룩시장 등을 열 수 있는 공간 등을 조성해야 한다. 먼저 근접이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먼 거리 지역 사람들도 찾아올 것이다.
3	배*임	8.시민참여(상호토론)	조성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함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재대로 듣고 만들어가야 한다. 계획했던 대로 재대로 조성이 되는지 하나하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4	이*옥	2.역사 보존공간	역사의 과정이 담긴 전시공간 및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4	이*숙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예술을 접하기 위해서는 서울을 가거나 송도(인천 남부)쪽으로 이동해야하기 때문에 예술 접근성을 위해서 실내 공연장이 필요하다. 음악회, 연극 등을 다양하게 열릴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한다.
4	최*자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부평의 대표 축제인 풍물축제가 있다. 부평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풍물 연습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공간과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4	이*숙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빵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조양방식과 같이 카페로 만들어서 문화를 경험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오고 싶은 인천의 명소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이*옥	2.역사 보존공간	인천하면 떠오르는 특색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평평야에서부터 인천육군조병창, 캠프마켓까지 역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체험함으로써 역사를 체득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
5	임*영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주민에게 개방하기 전에 심하게 오염된 환경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정비가 된 후에 주민이 함께 이용할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장 등을 건립하면 한다.
5	안*준	3. 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주변에 비해 다목적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기왕이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역사관도 포함하고 박물관처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한다.
5	권*희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복합문화 공간이되 영유아 청소년 청년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공간으로, 다목적복합적인,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련관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 다목적공간이라고 할 때 노인 위주의 공간이 많아서 되도록 이 넓은 장소에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T/N	이름	소통정책	입론 내용
5	안*준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부평공원이 있지만 생태공원을 제대로 갖춘 건강한 공원이 필요하다. 완전 정화를 한 후 복합공원, 복합센터(역사문화, 전시, 문화체험,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한)로 거대 부지를 활용하면 좋겠다.
5	임*영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인천시민들,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이 외부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온전히 가족들이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장, 역사관, 박물관, 체험장 등이 있는 젊어지는 즐거운 인천을 만들었으면 한다.
5	권*희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생태공원으로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청소년 아동들이 자연을 배우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힐링생태공원으로 인천 시민들이 모두 힐링할 수 있는 생태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반려견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5	조*연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인천 청소년 청년들이 인천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 복합공간이 필요하다.책임질 수 있는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가 되었으면 한다.
5	권*희	8.시민참여(상호토론)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부터 참여해서 긴 시간을 전체 기간으로 잡고 꼼꼼하게 반영하고 수정도 하면서 시민들의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연령대별 시민참여, 세대별 시민위원회 구성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반영해 주길 바란다.
6	최*진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 매뉴얼을 문화공원 조성 시에도 반드시 지켜달라. 비장애인만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게 세심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이 잡고 산책할 수 있는 봉 설치 등이 있겠다.
6	엄*자	6.복합건강체육시설	경제적인 부담없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원한다. 노년층을 위한 파크골프시설이나 날씨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마련해 탁구, 에어로빅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하면 좋겠다.
6	탁*옥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생태공원 조성을 원한다. 물향기 수목원처럼 만들어 가족들, 친구들이 돛자리 들고 소풍 나올 수 있는 공간, 특히 꽃을 계절별로 조성해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감성적인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6	엄*자	3. 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창작공간과 전시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 공간을 통해 시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생들에게 문화적인 감수성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 같다 . 글쓰기 공간을 개인적으로 원한다.
6	최*진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인천에는 음악회 개최 횟수와 공간이 상대적으로 적다.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열 수 있는 공간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원한다. 청각적으로만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장애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음악공간이 더 간절하다.
6	탁*옥	2.역사 보존공간	캠프마켓이라는 공간을 통해 전쟁과 우리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융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생태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공간과 교육의 공간이 공존하는 것이 이상적인 것 같다.
7	최*주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완벽한 철거 후에 환경정화도 완전히 마친 후 인천의 센트럴파크로 조성하면 좋겠다.
7	최*수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모든건물 완전철거 및 환경정화 완료가 필요하다.

T/N	이름	소통정책	입론 내용
7	양*숙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8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20%는 전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자.
7	황*한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일산호수공원 같이 자연호수로 80%의 공간을 채우고 필요한 복지시설과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에 20%의 공간을 채우면 좋겠다.
7	양*숙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부지 전체를 활용하여 인천뿐 아니라 서울 등 타도시에서 관광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오염된 환경 등의 정화 작업 후에 보존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8	최*현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숲공원 조성이 되기를 원한다. 호수공원까지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라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부평의 청년들이 부평역사쪽에서 음주가무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는데 젊은이들이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공방, 청년들이 운영하는 공간조성) 한다면 타지역에서도 찾는 공간이 될 것이다
8	최*자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아무것도 조성하지 않고 한강같이 돛자리만 깔고 즐길 수 있는 피크닉공간으로만 조성 되기를 바란다.
8	엄*대	2.역사 보존공간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역사를 가진 건물을 보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자. 일부는 보수해 역사 문화공간으로 만들자. 학생/청소년들이 역사 교육 및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8	김*근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맞춰 생태공원으로 조성. 많은 것들을 설치하지 말고 빈공간으로 두어서 인위적으로 많은 것을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청소년에게 공간만 제공 하면 청소년이 와서 스스로 꾸밀수 있는 공간으로만 제공 해 주기를 바란다. 정형화된 인위적인 것을 탈피하자
8	정*성	5.시민 공동체 공간	60만 평 이상의 큰 공간에 무엇을 짓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무엇이 들어 오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 젊은이들이 만든 연극을 어르신들이 보시고 세대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어르신을 위한 공간/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분짓지 않으면 좋겠다.
8	김*희	5.시민 공동체 공간	어르신/청소년/1인 가구 등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공간으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과 힐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온전하게 즐길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8	최*자. 정*성.	6.복합건강체 육시설	시민이면 누구나 전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기획단계에서 조성까지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되고 조성해야 하지만 관리 부분은 일괄성이 있어야 하므로 시민위원회를 꾸려 위원들이 참여해 소통해 나가야 한다.
9	진*인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나이가 들어가니 아이들 및 가족들이 함께 거닐수 있는 산책로와 숲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9	곽*전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부평의 도심은 주거공간이 아주 빽빽하므로 생태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다만 오염된 건물은 철거하되 오염되지 않은 건물들은 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9	황*주	2.역사 보존공간	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캠프마켓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시민들과 아이들이 잘 아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이다.

T/N	이름	소통정책	입론 내용
9	전*기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전체적으로는 공원의 형태를 유지하되 복합적으로 테마가 있는 예술 공원의 형태를 띄면 바람직할 것이다. 역사적인 자료도 보존하기를 바란다.
9	이*세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고령화 시대에 어른 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쉼터 개념의 공간이 조성되어 자유롭게 운동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10	김*숙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길 바란다. 원도심에는 일부러 만들 수 없으니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해가 심해져가는데 냇가가 흐르고, 물고기도 있고, 식물과 꽃을 심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10	이*숙	2.역사 보존공간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근/현대 인천의 역사를 담은 역사관 조성과 특히 민족의 저항운동과 관련된 자료가 담겨져 있도록 하고, 교육관, 체험관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인천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10	김*욱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인천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으로 개발되길 바랍니다.왜냐하면 주변에 부평공원이 있는데 주민 밀도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니 상동의 호수 공원이나 인천대공원의 호수 공원처럼 조성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인근에서 생태공원을 모든 연령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	양*남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합니다.무대장치를 만들어놔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끼를 펼칠수 있고,다양한 연령층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되어서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구마다 이용시간을 다르게 설정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10	김*수	7.어르신 문화복지시설	어르신 복지시설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초고령화시대로 나아가는데 노인회관을 만들어서 평생학습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 독거노인들도 많은데 어울릴 수 있는 친목도모회도 할 수 있는 공간, 일 자리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10	최*욱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생태공원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자연친화적인 야생화를 심거나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휠체어로도 가족들과도 산책할 수 있는 등 특색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1	김*순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어린이 놀이터가 필요하다. 주위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사는 주민들도 많고, 학교도 초중고 주변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다. 부평 대표 도시정원 속 어린이 특화 놀이터를 만들면 좋겠다.
11	민*기	4.상업적 시설	상업시설 및 복합체육시설처럼 많은 수익성을 내지는 않겠지만,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에 찌든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생태숲 명상센터 만들면 좋겠다.
11	정*숙	2.역사 보존공간	주변 학교 많아서, 학생들에게 역사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바란다., 서울에 비해 인천에는 역사를 체험하거나, 볼 수 있는 곳이 없다.
11	유*순	2.역사 보존공간	요즘 어린친구들에게, 일제강점기, 군수시설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나, 우리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기존 캠프마켓에 있는 기존 건물들을 보존하면서, 스토리에 따른 공원 조성 필요하다.

T/N	이름	소통정책	입론 내용
11	정*열	2.역사 보존공간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한 발상지 부분을 찾아보고, 왜 이 부평에 군수 시설이 되었는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인천에 오게 되면, 이런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천의 대표 관광 요소 특화 명소로 만들어 보자.
11	변*화	2.역사 보존공간	역사와 옛 대중 문화 자료관을 만들자. 캠프마켓에는 30여개의 클럽이 있었다는데, 동수역에서 용산 미군부대까지 대중음악의 선도를 이끈 미군주둔지였고, 인천조병창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존할 가치가 있다.
11	민*기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여기 캠프마켓이 미군부대에서 대중음악을 선도했다는 비하인드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 대학의 실용 음악과 공연에 관한 대학을 이곳에 유치해서 음악 연구도 하고, 버스킹 같은 공연도 할 수 있는 인천 대표 음악학교를 만들어보자. 시민들이 편하게 와서 공연도 보고, 쉴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자. 인천시민들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자.
12	임*숙	5.시민 공동체 공간	아이들과 어른들의 생각이 다르고 공감하는 지점도 다르다. 이런 격차가 큰 소통방식을 줄이려면 같이 공감하고 어울리며 서로를 알아가는 공간이 필요하다.
12	하*채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도심에서 자연 그대로를 느끼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인위적인 것은 완전히 빼고 가족과 힐링하며 산책하고 온전히 생 그대로의 자연을 누리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12	방*미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공업 도시 이미지가 강한 인천이다. 그래서 인천(부평)이 새롭게 도약 할 수 있게 이미지도 바뀔 수 있게 누구나 언제나 다가가기 쉽고, 꼭 와보고 싶은 밝은 이미지로 인천(부평)만의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게 문화 공원에 계절마다 색깔이 바뀌는 것을 표현 하는 것이나 역사 해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풍물 놀이 상설 공연장 마련 등 여러가지로 체험 할 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2	박*환	2.역사 보존공간	캠프마켓은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산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소라 생각된다. 그러한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고 전쟁의 산물임을 잊지 않도록 현장을 보존함과 동시에 현실에서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경 오염, 정서적 피해의식 등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개발은 하되 역사적 정체성은 보존해야 한다.
12	김*례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인천의 대표는 부평이다. 문화 예술공연이 상시로 열리도록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공연도 연령 등 선택적으로 공연 관람도 하고, 역사에 맞게 팝, 풍물, 어린이 공연, 전시등 신청하면 누구나 공연할 수 있게, 시민대여공간을 만들어서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모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12	박*환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각 연령 층이 관심도 다르고 일상 생활 중에 신조어 '깡깡빠빠', '문상','생파' 등 세대 간에 언어가 다르니 세대간 교류가 필요하다. 교류 방법에는 토론이나 같이 공연에 참여하거나 함께 관람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하면 거리를 좁혀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2	임*숙	8.시민참여(상호토론)	조성 계획 단계부터 의견을 계속 내야 한다. 이것도 소통의 하나이고 계속 의견이 모아지다 보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T/N	이름	소통정책	입론 내용
13	김*분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환경오염이 심한데 어떤 것보다 자연생태가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특히 숲체험장, 작은 동물이 있는 쉼터, 산책로 같은 공간이 만들어지길 원한다. 이런 게 없는 동네는 시대에 뒤떨어진 곳이라고들 하는데 없다고 할 때 시민으로 매우 자존심 상한다.
13	정*숙	7.어르신 문화복지시설	앞으로의 사회가 초고령화로 가는 만큼 현저히 부족한 어르신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 매우 필요하다. 노년 연령에 맞춘 맞춤형 문화복지가 되어야 하는데 전문가와 함께 실제 이용할 어르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시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실외 시설만이 아닌 실내 시설도 고려하여 날씨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13	이*옥	2.역사 보존공간	거시적인 정책이 꼭 필요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캠프마켓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조병창 및 병원건물이 있는데 이것은 보존되어야 한다. 둘째, 침탈의 역사를 알리고 그것을 통해 경각심을 갖도록 무장해야 할 것이다. 세째, 후손들에게 중요한 산 역사의 장으로 학습효과를 고취한다. 네째, 유네스코 유산 등재 얘기가 나올 만큼 귀중한 유산이다. 전 국민이 인천 캠프마켓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한다.
13	양*혜	2.역사 보존공간	전 세대가 함께 어울어지는 생태공원을 원한다. 생태공원 중에서도 생태문화와 캠프마켓의 역사, 유적과 함께 보존, 조성되는 공원이 되기를 원한다. 인천시민 모두가 이곳의 역사와 함께 하는 역사문화 생태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13	소*순	2.역사 보존공간	캠프마켓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 부산 하야리아부대 경우 다 밀고 근린공원을 만들었다. 반면 파주 그리부스 캠프는 영화촬영장 겸 반공교육을 하고 있다. 생태공원은 어디나 가능하나 캠프마켓 처럼 역사적인 공간은 잘 없다. 인천만의 공원이 아니라 세계의 공원이 되어야 한다.
13	나*숙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파주 헤이리 마을처럼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도 연수구에서 주최하는 '달빛축제' 같이 젊은층과 노년층이 장르를 불문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이 들어오기를 원한다.
13	이*옥	2.역사 보존공간	아프고 어두운 역사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밝고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달되어야 한다. 왜 우리가 침탈되었는지, 왜 강점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와 캠프마켓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게 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해야 한다.
13	양*혜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캠프마켓은 미국 재즈음악이 최초로 한국에 들어오고 용산으로, 전국으로 뿔어나간 역사가 있는 곳이다. 현재 한국의 대중음악이 세계로 뿔어나가고 있는데 캠프마켓의 대중음악 역사와 콜라보한 현대 대중음악이 이곳에서 공연되고 아울러 세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13	소*순	2.역사 보존공간	캠프마켓은 여기만의 역사성을 살려야 의미가 있다. 예전에는 부평시장역에서 철마산까지 모두 캠프마켓일 만큼 부지가 컸는데 그 중 17만 평 남은 곳이 캠프마켓이다. 캠프마켓의 특징은 다른 곳은 다 외곽에 있지만 캠프마켓은 도심에 있다는 것이다. 도심에 있다보니 인근 주민 중 부동산 개발효과를 노리고 역사성을 무시한 채 개발논리로 접근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T/N	이름	소통정책	입론 내용
14	이*자	5.시민 공동체 공간	청소년, 여성을 위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힐링할 수 있는 찜찜방 등 회의실에 소모임도 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맘껏 스트레스도 풀고 정서순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14	김*미	5.시민 공동체 공간	녹지화되어서 탄소중립형 생태공원이 되어야 한다. 주변에는 아파트 뿐이고 호수공원, 생태공원 같은 녹지공간이 없다. 산에 가서 힐링하듯, 이곳에 녹지공원, 생태공원이 생겨 힐링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좋겠다.
14	이*자	6.복합건강체 육시설	운동놀이하는 공간이 조성이 되면 중구에서 방문해볼까 생각해본다.
14	김*애	3.다목적 문화/예술/교 육공간	역사적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 부천에 살고 있었지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기에 역사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역사를 학습할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14	김*미	8.시민참여(상호토론)	조성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이러한 공청회를 열어서 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5	유*훈	4.상업적 시설	청년을 위한 공동체 공간조성이 필요하다. 송도 청년스타트업이 있지만 거리가 멀다. 캠프마켓에도 송도와 같은 청년공간이 조성이 되면 접근성이 좋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15	남*선	3.다목적 문화/예술/교 육공간	인천에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예술 공연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공간이 없다. 개방적이고, 교통이 좋아 접근성이 유리하다.
15	채*정	3.다목적 문화/예술/교 육공간	다목적 학습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캠프마켓 주변으로 아파트가 많이 위치해 있고, 시민들 접근성이 좋으니 평생교육시대에 맞춰 전연령대를 대상으로한 다목적 학습공간이 조성 되면 좋겠다.
15	황*덕	3.다목적 문화/예술/교 육공간	부평풍물시장처럼 누구나 와서 공연 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 조성되면 좋겠다. 캠프마켓은 인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다.
15	유*훈	6.복합건강체 육시설	복합 체육시설 조성이 필요하다. 배드민턴, 농구장, 배구장등 운동시설을 비롯,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 형태로 운영이 되면 좋겠다.
15	남*선	4.상업적 시설	문화공원이 조성이 되면 상업적 시설이 필요하다. 남녀노소 즐겨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인천의 역사를 담은 기념품, 인천시민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아이템을 개발한 시설들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15	채*정	2.역사 보존공간	서대문형무소처럼 일부는 보존을 하여 후대에게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15	황*덕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송도 센트럴파크처럼 부평 센트럴파크로 조성하여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16	신*옥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토지정화를 위해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보기에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만들었으면 한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

T/N	이름	소통정책	입론 내용
16	김*남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주택가 주변이기 때문에 공원이 생기면 공기도 좋아지고 생활환경이 좋아져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을 것이다. 일산호수공원처럼 지역을 살리는 공원이 생기면 좋겠다.
16	길*순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공원이 부족한 부평에 남녀노소 가족이 산책할 수 있고 철새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생태공원이면 좋겠다.
16	고*순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인천에는 해이리 마을 같은 유명한 문화예술공간이 없다. 청소년 비보이부터 어르신 배움공간까지 재능을 키우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좋겠다.
16	임*희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부평은 음악도시로 지정되었다 . 부평시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여 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서민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창작공간, 문화공간 생기면 좋겠다.
16	신*옥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부평은 녹지비율이 적고 인구는 많다. 동네 주민 입장에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 공간이 넓으니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16	고*순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아이들 정서와 어른들도 좋아하는 연꽃공원이 들어서면 좋겠다.
16	임*희	2.역사 보존공간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인천은 6.25전쟁, 철도 건설, 수도권외 문화관문이란 점에서 중요했다. 그럼에도 이런 역사성을 내보일 수 있는 보존된 건물이 없었다. 캠프마켓의 건물을 다 없앤다면 지역의 손실이다. 역사적 의미를 띤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 인천의 정체성을 살릴 근대역사 홍보의 공간으로 말이다.
17	이*은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중장년, 노년들이 이용할 시설이 없다. 넓은 공간과 편리한 교통의 인천 중심지(부평)에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 인천을 대표할 만한 문화공연장(큰 규모의), 교육장(실생활에 필요한 교육공간) 등이 있으면 좋겠다.
17	이*노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서구에 생태공원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조경 등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홍보가 안 돼 있다. 부평구는 인천의 한가운데에 있으니 생태공원이 만들어져서 인천시민이 활용하기 쉬웠으면 좋겠다.
17	강*숙	6.복합건강체육시설	젊은세대가 음지에 많이 모인다. 양지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공간(체육시설)이 있어야 한다.
17	김*희	2.역사 보존공간	전세계에 일본이 침략하며 8개 군수공장을 만들었다. 정작 일본은 다 공원으로 바꿔버렸다. 식민지에 남은 유일한 조병창이 인천 조병창이다. 역사를 잊지않고 지켜야 한다.
17	한*국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전세계적인 화두가 탄소중립이다. 거스를수 없는 사회흐름이다. 오염원 제거는 아직 멀었다. 오염에 강한 나무를 많이 심어 생태적으로도 도움이되는(자연복원) 공원이 필요하다.
17	이*은	5.시민 공동체 공간	큰 공간을 활용하여 시설을 잘 구비하여 가족과 함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세대별로 맞는 체육시설, 교육시설 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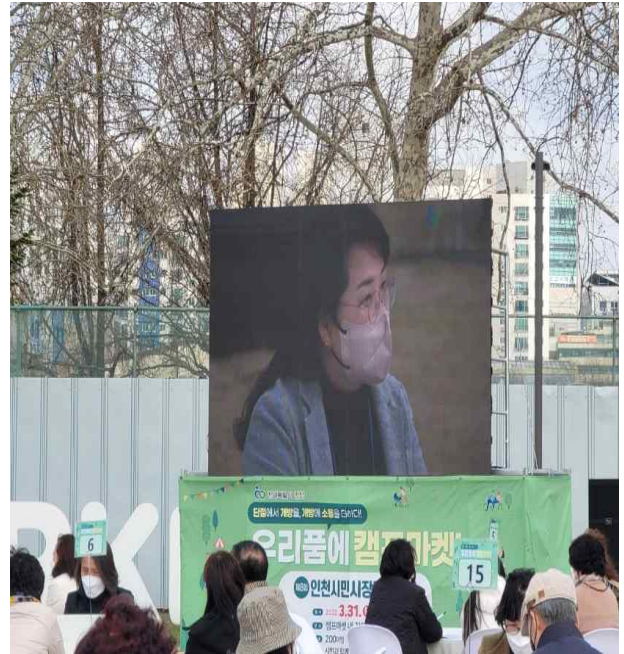
T/N	이름	소통정책	입론 내용
17	한*국	2.역사 보존공간	일본의 역사 왜곡이 심화된다. 역사는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보존에 힘써야 한다. 후손에게도 역사는 알려야한다
17	김희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나무를 많이 심어 도시숲길을 만들면 좋겠다. 건물이 들어선다면 탄소배출제로 건물을 세우면 좋겠다. 인천을, 지구까지 위해서라도 녹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심지라 온도가 너무 덥다. 나무가 많으면 도시에어컨이 될 것이다
17	강*숙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후세를 위해서도 생태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먼 곳까지 갈 필요없이 가까운 곳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17	이*노	2.역사 보존공간	인천에 오래 살았지만 이곳의 역사를 깊이는 몰랐다. 역사는 반드시 후손에게 이어져야 하므로 역사보전은 꼭 필요하다. 아픈 역사라 할지라도 역사는 지켜져야 한다.
18	정*혜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역사에 관한 박물관, 사진 전시 등으로 다목적 예술 문화 공간이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18	차*영	2.역사 보존공간	전쟁의 역사라 하더라도 일본의 경우 전쟁에 대한 반성도 없고 전쟁에 대한 역사를 다 지우고 캠프마켓 하나만 남았기에 보존 가치가 높다.
18	김*순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주변에 아트센터가 있지만 거리도 멀고 다양한 볼거리가 부족하기에 이곳은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면 좋겠다. 대학로처럼 연극공연이나, 케이팝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18	안*자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문화공간으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18	김*순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가족들이 공연 본 후 (3번 조성되는 경우) 산책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원이면 좋겠다.
18	정*혜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탄소 중립이 가능하도록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지키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원이 같이 조성되면 좋겠다. 주차장도 같이 조성하면 좋겠다. 주변 및 타지역에서도 올 수 있어야 한다.
18	안*자	5.시민 공동체 공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및 북카페가 생기면 좋겠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공간)
18	차*영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도시안에 숲으로 조성된 생태공원을 만들자. 나무가 많아서 탄소중립 역할을 하면 좋겠다.
18	김*순	8.시민참여(상호토론)	시민시장 토론회인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씁쓸합니다. 보고정보다는 현장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8	정*혜	4.상업적 시설	다목적 문화 공간과 더불어 상업 시설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되면 좋겠다. 여러가지 먹거리나 굿즈 같은 것을 파는 상점도 들어오면 좋겠다.

T/N	이름	소통정책	입론 내용
18	김*순	8.시민참여(상호토론)	가족들이 체험하고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체험장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운영하는 체험장.
18	정*혜	8.시민참여(상호토론)	재활용하는 중간 단계 작업에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19	최*희	2.역사 보존공간	매항리 마을을 보고서 우리의 현대역사가 슬프고 아팠습니다. 역사는 그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전쟁의 아픔과 지구 전 세계의 평화를 기리는 곳,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지금까지 이어오는 역사 민주주의 평화의 도시, 인천의 상징적인 곳이 되길 희망하여 현재 있는 건물 중에 남길 수 있는 공간은 보수하여 보전하면 좋겠습니다.
19	강*옥	8.시민참여(상호토론)	아파트 알림판 및 언론 등에 알려져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더 이루어지면 좋겠다.
20	홍*희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나무를 많이 심고 꽃도 심어서 남녀노소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공원이면 좋겠다. 편안하게 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정도의 가벼운 운동할 수 있는 공원이 좋다. 여러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싫다 .
20	김*희	2.역사 보존공간	역사박물관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역사에 대해 잊혀져 가는 바쁜 시대에서 역사박물관을 통해 서로 우리 인천지역의 역사와 공동체의식을 가지면 좋겠다. 인천이 캠프마켓을 알 수 있게 해서 여러사람에게 역사인식이 공유되면 좋겠다
20	홍*부	4.상업적 시설	외부사람들이 캠프마켓에 머무를 수 있는 관광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캠프마켓의 역사적인 시설들을 잘 보존하고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주변의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면 관광하러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20	장*숙	2.역사 보존공간	서울용산캠프나 군산, 목포처럼 전쟁의 현장이나 미군부대의 흔적을 남기고 개방해서 누구든지 참관하고 역사적인 흐름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시간의 흐름속에서 존재했던 공간이라 24시간 개방하면 좋겠다. 대부분의 공간은 역사적인 공간으로 남기되 일부 공간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쉴 수 있는 쉼의 공간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20	최*미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캠프마켓이 부각되면 좋겠다. 예술의 전당과 같은 공연장, 전시장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다른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인천안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면 좋겠다.
20	박*식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숲을 만들 수 있게 나무를 많이 심고 적절한 크기의 호수가 있으면 좋겠다. 한쪽 부분에는 식물원도 마련하면 좋겠다.
20	박*식	2.역사 보존공간	부평의 송장동 애기등 부평만의 숨어있는 문화적인 이야기를 잘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캠프마켓만의 역사적인 시설을 제대로 살리고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 지금의 캠프마켓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이곳에서의 흔적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부평만의 문화적인 공간이 되길 바란다.

T/N	이름	소통정책	입론 내용
21	권*정	6.복합건강체육시설	부평의 핵심구역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민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내 중심시설이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것이다.
21	김*임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면 좋겠다. 코로나 이전에 문화예술을 접하기 위해 서울로 갔었다. 인근에 참여가능한 문화전시나 예술공연 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
21	김*순	2.역사 보존공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물관조성으로 아이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알렸으면 좋겠다.
21	김*순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다녔었다. 가까운 곳에 복합문화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
21	이*숙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생태공원이 중심이 되었으면 한다. 자연공간이 조성되어 연세드신 분들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시설들과 어우러지는 생태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 가능할 것이다.
21	정*임	3.다목적 문화/예술/교육공간	플로티스트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이다. 인천에는 음악에 관련된 곳들이 너무 적다. 공연을 하기 위해 스펙을 쌓아야 하는 공연장이 아닌 누구나 이용 가능한 야외음악당, 실내음악당을 만들어서 동아리 활동, 버스킹 등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21	김*문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가족들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도시숲이 되었으면 한다. 완전한 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언제든지 방문 가능한 깨끗한 자연공간, 도시숲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21	정*임	8.시민참여(상호토론)	음악당 옆에 나라별 특징이 있는 테마가 있는 정원이 있으면 더 운치가 있고 음악과 연계될 수 있을 것 같다. 특별한 잔디나 조경(높은 음자리, 피아노건반 등)도 좋을 것 같다.
21	김*임	8.시민참여(상호토론)	음악분수대를 만들어서 음악과 어우러지는 공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21	안*연	1.탄소중립형 생태공원	저는 구역별로 나눠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부평공원쪽은 체육시설, 뒤쪽 주안장로교회쪽은 아동, 청소년 관련한 교육(음악, 미술, 과학, 창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있었으면 합니다.

4. 현장스케치





5.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 설계

조사 대상	■ 인천시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 크기	■ 1,050명 (목표할당 사례수: 1,000명)
(1)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02\%$ Point
(2)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모바일 조사
(3) 표본 추출	■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층화추출법
(4) 표본 추출틀	■ 마크로밀엠브레인 패널 1,551,944명
(5) 응답률	■ 17.64% - 1,050명 완료(5,952명 설문 발송. 응답자 1,636명 중 586명 중도이탈)
(6) 조사 기간	■ 2022년 3월 18일 ~ 3월 23일
(7) 조사 기관	■ 엠브레인

※ 주의

- 최대표본오차($\pm 3.02\%$ Point) 내의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ex. A의견 50.00% vs. B의견 47.00%일 경우, 두 의견의 격차가 3.00%p, 표본오차인 3.02%p 이내이므로, 두 의견의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음)
- 교차통계표에서 사례수가 30 이하의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조사 결과 교차 집계표의 행별 백분율 합계는 99.9% 또는 100.1%가 될 수 있음. 이는 소수점 반올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소수점 아래 수치는 통상의 표본오차 크기보다 작아서 전체 결과 해석에 영향을 주지 않음.

2)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표	
		사례수	비율(%)
전체		(1,050)	100.0
성별	남성	(534)	50.9
	여성	(516)	49.1
연령별	20대	(187)	17.8
	30대	(193)	18.4
	40대	(231)	22.0
	50대	(244)	23.2
	만 60세 이상	(195)	18.6
권역별	중부권	(160)	20.5
	남부권	(336)	32.0
	동부권	(305)	29.1
	서부·도서권	(194)	18.5
인천시 거주기간	1년 미만	(14)	1.3
	1~5년 미만	(80)	7.6
	5~10년 미만	(116)	11.0
	10~20년 미만	(210)	20.0
	20~30년 미만	(270)	25.7
	30~40년 미만	(199)	19.0
	40년 이상	(161)	15.3
직업	자영업/개인사업	(89)	8.5
	판매/영업/서비스직	(89)	8.5
	생산/기능/노무직	(119)	11.3
	사무/관리/전문직	(425)	40.5
	전업주부	(134)	12.8
	학생	(59)	5.6
	무직/퇴직	(90)	8.6
	기타	(45)	4.3

* 중부권: 중구, 동구, 미추홀구 / 남부권: 연수구, 남동구 / 동부권: 부평구, 계양구 / 서부·도서권: 서구, 강화군, 옹진군

* 사례수 적을 경우(30개 미만)는 해석 시 주의 필요

< 2022년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 사전조사 > 결과 요약

문1. 귀하는 캠프마켓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Q01	'캠프마켓' 인지 여부	평균 (4점 만점)	매우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르는 편이다
		3.15	3.4	21.6	31.1	43.8

문2. 귀하는 현재 개방된 캠프마켓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Q02	'캠프마켓' 방문경험 유무	한두 번 방문한 경험이 있다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다	전혀 방문한 경험이 없다
		11.7	3.5	84.8

문3. 직접 방문하거나 알고 계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Q03	방문·인식 경로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	신문기사	시정 또는 구정 홍보지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기타
		12.8	29.2	11.3	6.7	40.0

문4. 인천시는 캠프마켓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Q04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	역사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한 보존과 활용의 균형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소통·배움 장소 역할	공원조성 전 과정의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타
		25.3	31.2	35.4	7.2	0.8

문5. 기존 계획된 도시계획 시설 중 장고개로 북측에 계획된 시설인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부지에 어떤 시설이 입지되면 좋을까요?

Q05	북쪽 공공청사·체육시 설 부지 입지시설 선호도	공공청사 -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문화시설 - 공연장·회의장· 전시장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도서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상업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체육시설 -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등	기타
		9.0	32.7	26.8	8.4	22.4	0.9

문6. 캠프마켓 남쪽부지는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문화공원 부지
에 어떤 공간이 조성되기를 원하십니까?

Q06	남쪽 문화공원 부지 조성공간 선호도	자연생태공 간 - 도시 숲, 정원, 산책로, 피크닉장 등	음악, 예술 등 문화공간 - 창작, 전시, 공연장 등	커뮤니티 공간 - 지역주민 복합문화공 간, 지역공동체 활동 등	건강증진 공간 -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역사체험, 교육공간 - 근대건축물, 박물관, 역사체험, 전시 등	지역특화 공간 -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타
		52.0	12.9	8.9	6.4	11.8	7.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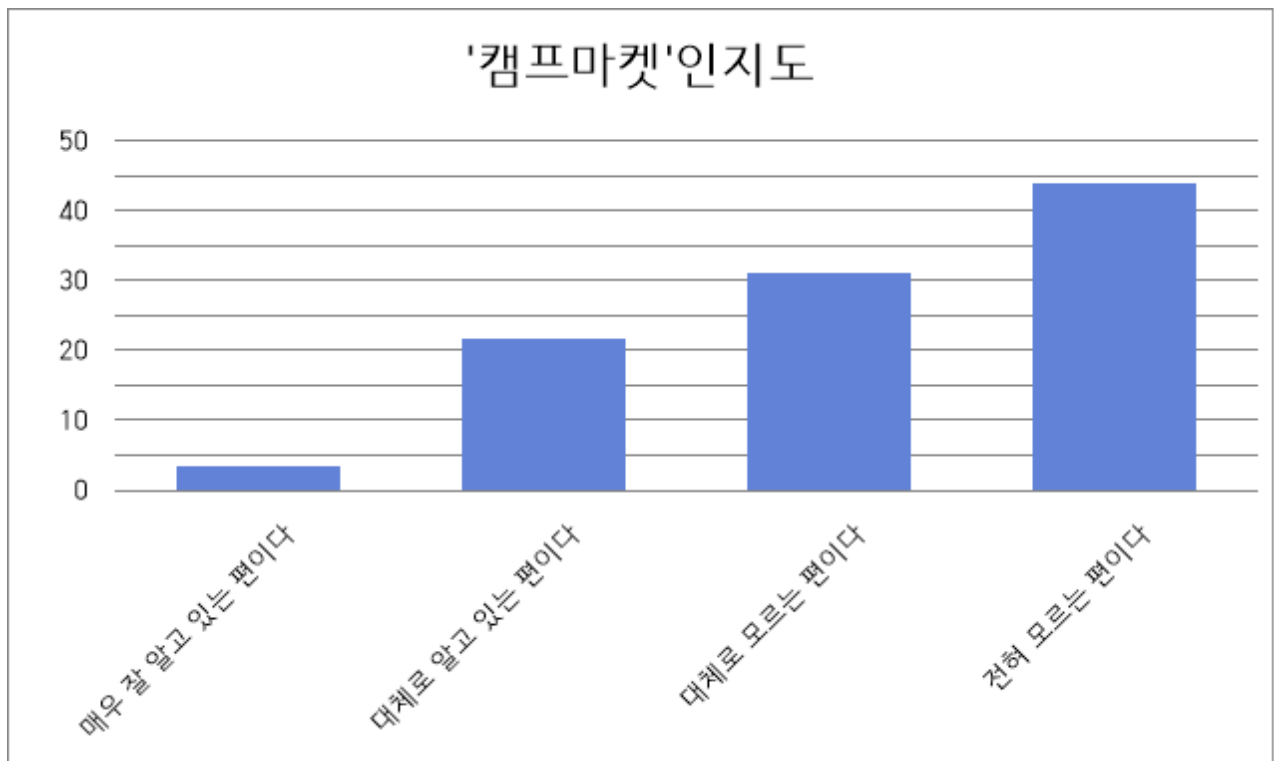
1. '캠프마켓' 인지 정도

문) 귀하는 캠프마켓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캠프마켓'에 대한 인지 정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25.0%로 인천시민 10명 중 2.5명 정도가 '캠프마켓'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지 정도가 높은 응답에 1점, 낮은 응답에 4점을 부여하고 조사한 인지도 평균이 3.15로 강한 부정에 가까움. 즉 인지도가 낮은 편임. 40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의 인지도가 가장 높음.

그림 1 | '캠프마켓' 인지 정도

(Base: 전체, n=1,050, 단위 : %)



🔍 특성별 분석

- ▶ '아는 편이다'는 남성(33.9%), 연령대가 높을수록(만 60세 이상 39.5%), 거주지별로는 동부권(30.9%), 거주기간별로는 40년 이상(38.5%), 직업별로는 자영업/개인사업(31.5%)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 '모르는 편이다'는 여성(84.1%), 연령대가 낮을수록(20대 83.9%), 거주지별로는 서부/도서권(92.3%), 거주기간이 짧을수록(1년 미만 92.9%). 직업별로는 기타(86.7%)를 제외하면 전업주부(82.9%)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 | '캠프마켓' 인지 정도

(Base: 전체, n=1,050, 단위 : %)

'캠프마켓' 인지 정도		사례수	평균	매우 잘 알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르는 편이다
전체		(1,050)	3.15	3.4	21.6	31.1	43.8
성별	남성	(534)	3.00	5.1	28.8	27.5	38.6
	여성	(516)	3.32	1.7	14.1	34.9	49.2
연령별	20대	(187)	3.39	1.6	14.4	27.8	56.1
	30대	(193)	3.31	4.1	15.0	26.9	53.9
	40대	(231)	3.20	3.0	18.6	33.3	45.0
	50대	(244)	3.08	3.7	24.6	31.6	40.2
	만 60세 이상	(195)	2.81	4.6	34.9	35.4	25.1
	만 60세 미만	(195)	2.81	4.6	34.9	35.4	25.1
권역별	중부권	(215)	3.22	2.4	20.2	30.3	47.0
	남부권	(336)	3.18	3.4	19.0	34.0	43.7
	동부권	(305)	3.03	4.9	26.0	30.7	38.5
	서부/도서권 ⁶⁾	(194)	3.30	0.7	6.9	53.8	38.5
인천시 거주기간	1년 미만	(14)	3.57	0.0	7.1	28.6	64.3
	1~5년 미만	(80)	3.36	1.3	11.3	37.5	50.0
	5~10년 미만	(116)	3.26	2.6	20.7	25.0	51.7
	10~20년 미만	(210)	3.12	4.3	22.9	29.0	43.8
	20~30년 미만	(270)	3.23	2.6	19.3	31.1	47.0
	30~40년 미만	(199)	3.15	4.5	19.1	33.2	43.2
	40년 이상	(161)	2.86	4.3	34.2	32.9	28.6
직업 ⁷⁾	자영업/개인사업	(89)	3.07	9.0	22.5	21.3	47.2
	판매/영업/서비스직	(89)	3.15	3.4	23.6	28.1	44.9
	생산/기능/노무직	(119)	3.19	1.7	22.7	30.3	45.4
	사무/관리/전문직	(425)	3.06	3.8	24.9	32.5	38.8
	전업주부	(134)	3.25	0.7	16.4	39.6	43.3
	학생	(59)	3.34	1.7	18.6	23.7	55.9
	무직/퇴직	(90)	3.28	2.2	18.9	27.8	51.1
	기타	(45)	3.29	6.7	6.7	37.8	48.9

* 중부권: 중구, 동구, 미추홀구 / 남부권: 연수구, 남동구 / 동부권: 부평구, 계양구 / 서부·도서권: 서구, 강화군, 옹진군

* 사례수 적을 경우(30개 미만)는 해석 시 주의 필요

6) 서부권에 속하는 강화군, 옹진군의 응답자수가 각각 3명이라 조사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함.

7) 직업 가운데 '농림/축산업'은 응답자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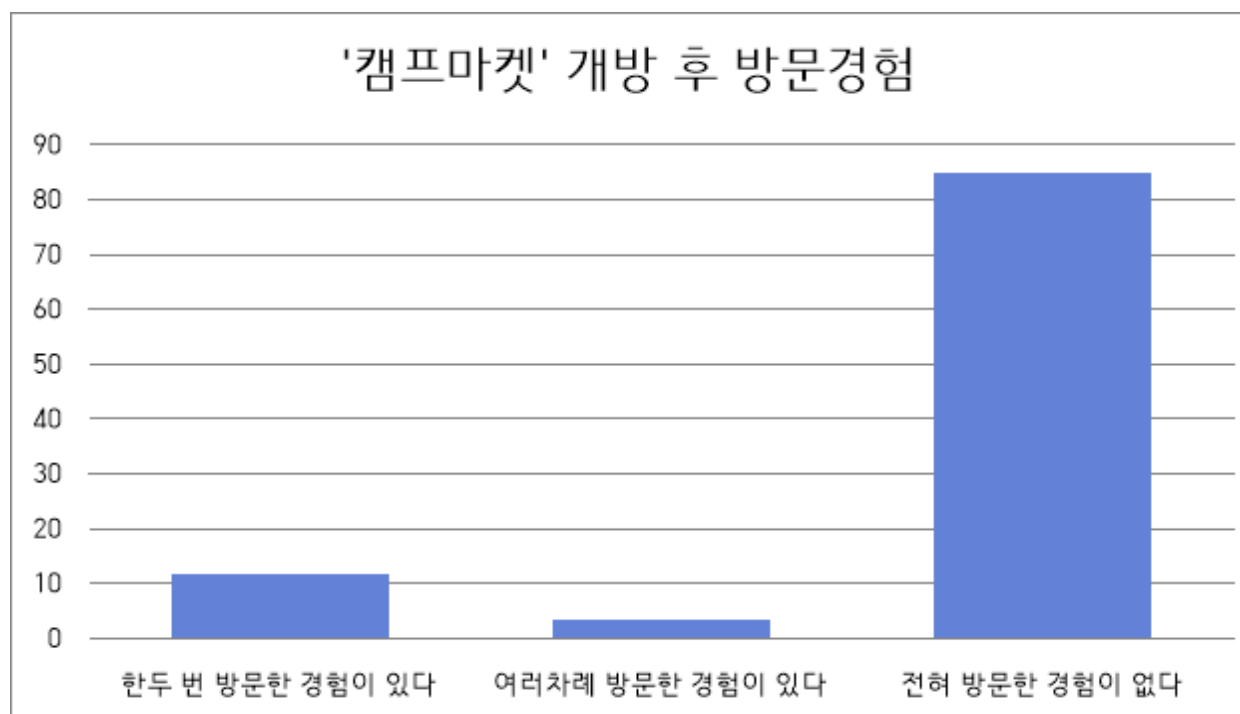
2. '캠프마켓' 개방 후 방문 경험 유무

문) 귀하는 현재 개방된 캠프마켓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캠프마켓' 개방 후 방문경험 유무를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15.2%(한두 번 방문한 경험이 있다 11.7%+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다 3.5%)로 인천시민 100명 중 15명 정도가 개방 후 '캠프마켓' 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 '캠프마켓' 개방 후 방문 경험 유무

(Base: 전체, n=1,050, 단위 : %, 점)



🔍 특성별 분석

- ▶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남성(20.1%), 만 60세 이상(24.6%), 동부권(18.5%), 40년 이상 거주자(18.0%), 자영업/개인사업(21.3%)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 '방문한 경험이 없다'는 여성(89.7%), 30대(88.6%), 서부/도서권(95.4%), 1년 미만 거주자(92.9%), 학생(91.5%)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 | '캠프마켓' 개방 후 방문 경험 유무

(Base: 전체, n=1,050, 단위 : %)

'캠프마켓' 개방 후 방문경험 유무		사례수	한두 번 방문한 경험이 있다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다	전혀 방문한 경험이 없다
전체		(1,050)	11.7	3.5	84.8
성별	남성	(534)	15.0	5.1	80.0
	여성	(516)	8.3	1.9	89.7
연령별	20대	(187)	8.0	4.3	87.7
	30대	(193)	8.8	2.6	88.6
	40대	(231)	9.5	2.2	88.3
	50대	(244)	12.7	3.7	83.6
	만 60세 이상	(195)	19.5	5.1	75.4
권역별	중부권	(215)	10.0	1.0	89.0
	남부권	(336)	10.9	2.3	86.7
	동부권	(305)	12.5	6.0	81.4
	서부/도서권	(194)	3.7	0.9	95.4
인천시 거주기간	1년 미만	(14)	7.1	0.0	92.9
	1~5년 미만	(80)	8.8	0.0	91.3
	5~10년 미만	(116)	11.2	5.2	83.6
	10~20년 미만	(210)	13.3	3.3	83.3
	20~30년 미만	(270)	9.3	3.7	87.0
	30~40년 미만	(199)	13.6	3.5	82.9
	40년 이상	(161)	13.7	4.3	82.0
직업	자영업/개인사업	(89)	11.2	10.1	78.7
	판매/영업/서비스직	(89)	12.4	2.2	85.4
	생산/기능/노무직	(119)	10.9	0.8	88.2
	사무/관리/전문직	(425)	14.4	4.5	81.2
	전업주부	(134)	8.2	0.7	91.0
	학생	(59)	6.8	1.7	91.5
	무직/퇴직	(90)	7.8	3.3	88.9
	기타	(45)	13.3	2.2	84.4

* 중부권: 중구, 동구, 미추홀구 / 남부권: 연수구, 남동구 / 동부권: 부평구, 계양구 / 서부·도서권: 서구, 강화군, 옹진군

* 사례수 적을 경우(30개 미만)는 해석 시 주의 필요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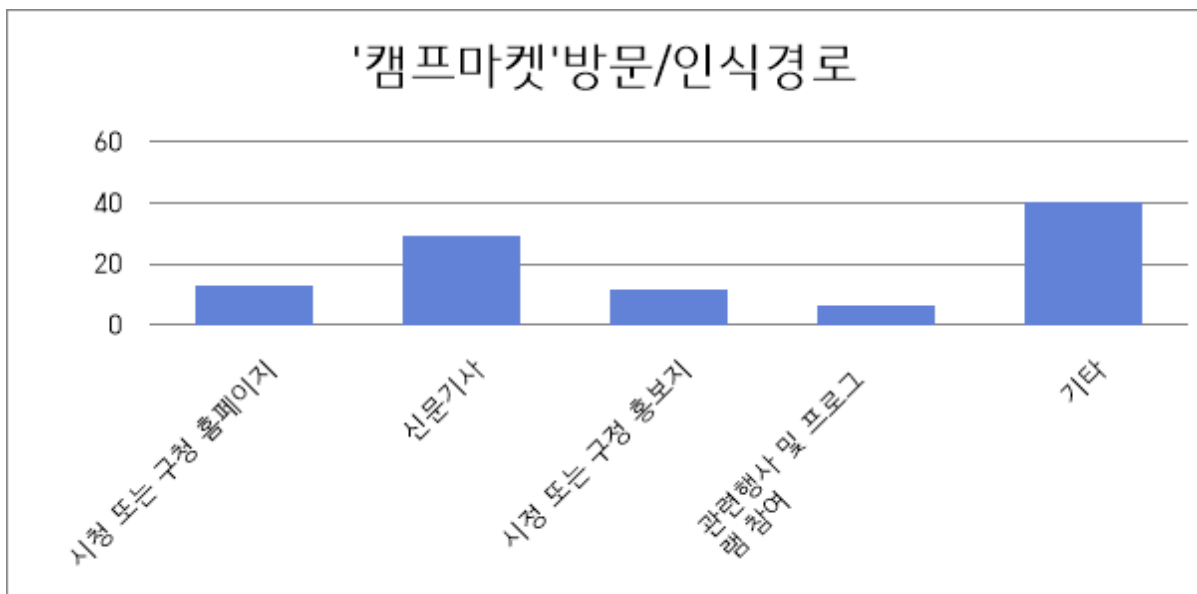
3. ‘캠프마켓’ 방문·인식 경로

문) 직접 방문하거나 알고 계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캠프마켓’ 방문·인식 경로를 조사한 결과, 기타(40.0%)를 제외하면 신문기사가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12.8%)’, ‘시정 또는 구정 홍보지(11.3%)’,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6.7%)’ 순임.
- 한편, ‘기타’의 세부 응답에는 ‘(인근 거주) 지나가다 봄’, ‘지인의 소개’, ‘TV’, ‘인터넷’, ‘유튜브’, ‘SNS’, ‘설문참여로’ 등이 있고 대부분은 ‘(정보) 모름’으로 나타남. 만 60세 이상 응답자의 ‘기타(모름)’ 응답이 가장 적음.

그림 2 | ‘인천광역시 승격 40주년’ 인지 경로

(Base: 전체, n=1,050, 단위 : %)



⑨ 특성별 분석

- ▶ 방문·인식 경로로써 ‘신문기사’는 남성(33.9%), 만 60세 이상(35.4%), 남부권(34.9%), 40년 이상 거주(40.4%), 생산/기능/노무직과 전업주부(33.6%)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신문기사’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가장 높음.
- ▶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는 여성(14.0%), 20대(15.5%), 서부/도서권(15.2%), 10~20년 미만(16.7%), 전업주부(26.9%)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시정 또는 구정 홍보지’는 남성(11.8%), 만 60세 이상(16.4%), 동부권(15.4%), 1~5년 미만(15.0%), 전업주부(32.1%)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는 남성(7.7%), 20대(9.1%), 동부권(8.5%), 1년 미만 거주(21.4%), 전업주부(8.2%)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 | '캠프마켓' 방문·인식 경로

(Base: 전체, n=1,050, 단위 : %)

방문·인식 경로		사례수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	신문기사	시정 또는 구정 홍보지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기타
전체		(1,050)	12.8	29.2	11.3	6.7	40.0
성별	남성	(534)	11.6	33.9	11.8	7.7	35.0
	여성	(516)	14.0	24.4	10.9	5.6	45.2
연령별	20대	(187)	15.5	21.4	11.2	9.1	42.8
	30대	(193)	11.4	21.2	7.8	6.7	52.8
	40대	(231)	8.7	32.0	10.8	6.1	42.4
	50대	(244)	13.5	34.0	10.7	5.3	36.5
	만 60세 이상	(195)	15.4	35.4	16.4	6.7	26.2
권역별	중부권	(215)	10.3	28.6	9.5	5.3	46.2
	남부권	(336)	13.0	34.9	8.1	5.5	38.7
	동부권	(305)	14.1	24.6	15.4	8.5	37.5
	서부·도서권	(194)	15.2	30.9	15.2	2.1	36.9
인천시 거주기간	1년 미만	(14)	7.1	7.1	14.3	21.4	50.0
	1~5년 미만	(80)	10.0	20.0	15.0	8.8	46.3
	5~10년 미만	(116)	16.4	25.0	7.8	7.8	43.1
	10~20년 미만	(210)	16.7	28.1	10.0	6.7	38.6
	20~30년 미만	(270)	13.7	28.9	12.2	7.0	38.1
	30~40년 미만	(199)	8.0	29.6	11.1	4.5	46.7
	40년 이상	(161)	11.2	40.4	12.4	5.6	30.4
직업	자영업/개인사업	(89)	13.5	18.0	12.4	4.5	51.7
	판매/영업/서비스직	(89)	13.5	28.1	7.9	6.7	43.8
	생산/기능/노무직	(119)	9.2	33.6	13.4	5.0	38.7
	사무/관리/전문직	(425)	13.6	32.7	11.4	7.3	35.5
	전업주부	(134)	26.9	33.6	32.1	8.2	32.1
	학생	(59)	15.3	27.1	8.5	6.8	42.4
	무직/퇴직	(90)	13.3	24.4	11.1	6.7	44.4
	기타	(45)	6.7	8.8	13.3	4.4	66.7

* 중부권: 중구, 동구, 미추홀구 / 남부권: 연수구, 남동구 / 동부권: 부평구, 계양구 / 서부·도서권: 서구, 강화군, 옹진군

* 사례수 적을 경우(30개 미만)는 해석 시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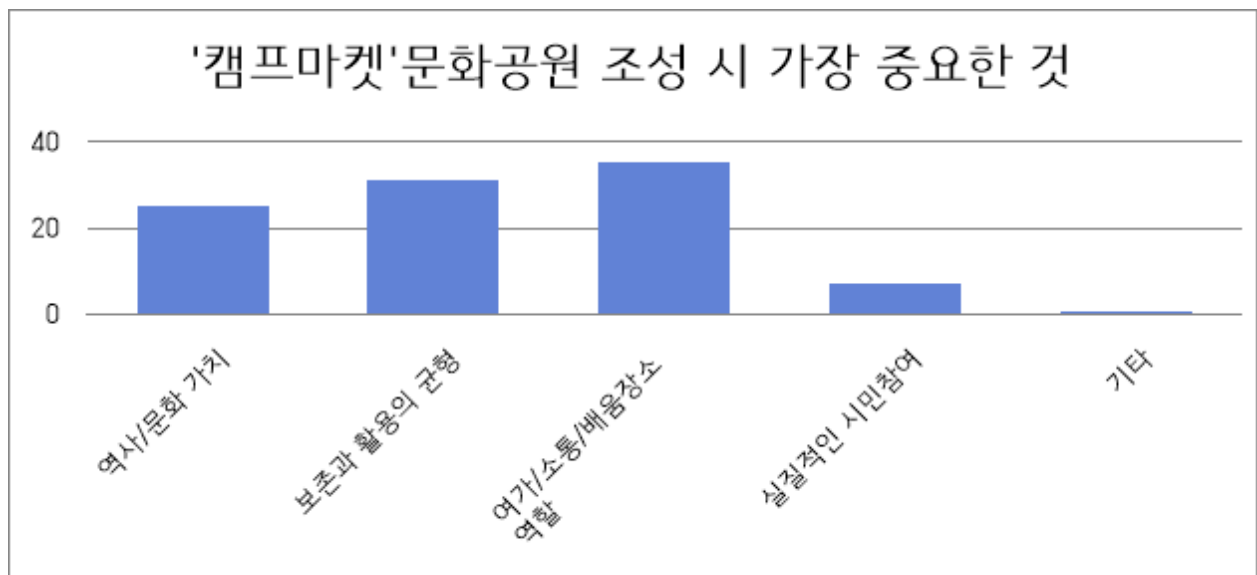
4.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

문) 인천시는 캠프마켓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본 결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소통·배움 장소 역할'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역사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한 보존과 활용의 균형(31.2%)',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25.3%)', '공원조성 전 과정의 실질적인 시민참여(7.2%)' 등의 순임.

그림 3 |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

(Base: 전체, n=1,050, 단위 : %)



9 특성별 분석

- ▶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중요한 점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소통·배움 장소 역할'은 남성(36.0%), 20대(41.2%), 서부/도서권(45.0%), 1년 미만 거주(42.9%), 판매/영업/서비스직(42.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역사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한 보존과 활용의 균형'은 여성(34.9%), 30대(39.9%), 중부권(36.6%), 5~10년 미만 거주(38.8%), 무직/퇴직(37.8%)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는 남성(27.9%), 만 60세 이상(28.7%), 동부권(28.4%), 10~20년 미만거주(31.0%), 자영업/개인사업(32.6%)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 '공원조성 전 과정의 실질적인 시민참여'는 남성(7.5%), 만 60세 이상(8.7%), 동부권(9.7%), 1년 미만(14.3%), 자영업/개인사업과 생산/기능/노무직(10.1%)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 | 캠프마켓 문화공원 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

(Base: 전체, n=1,050, 단위 : %)

캠프마켓 공원조성 시 가장 중요한 것		사례수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	역사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한 보존과 활용의 균형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소통·배움 장소 역할	공원조성 전 과정의 실질적인 시민참여	기타
전체		(1,050)	25.3	31.2	35.4	7.2	0.8
성별	남성	(534)	27.9	27.7	36.0	7.5	0.9
	여성	(516)	22.7	34.9	34.9	7.0	0.6
연령별	20대	(187)	19.8	30.5	41.2	7.5	1.1
	30대	(193)	23.8	39.9	30.6	5.7	0.0
	40대	(231)	28.1	26.8	36.8	7.4	0.9
	50대	(244)	25.4	29.9	36.1	7.0	1.6
	만 60세 이상	(195)	28.7	30.3	32.3	8.7	0.0
권역별	중부권	(215)	23.9	36.6	31.8	6.7	1.0
	남부권	(336)	23.5	33.4	37.6	5.2	0.3
	동부권	(305)	28.4	27.8	32.8	9.7	1.5
	서부·도서권	(194)	19.6	32.9	45.0	2.5	0.0
인천시 거주기간	1년 미만	(14)	21.4	21.4	42.9	14.3	0.0
	1~5년 미만	(80)	28.8	36.3	28.8	6.3	0.0
	5~10년 미만	(116)	21.6	38.8	33.6	3.4	2.6
	10~20년 미만	(210)	31.0	28.6	32.9	7.1	0.5
	20~30년 미만	(270)	21.1	30.4	38.9	9.6	0.0
	30~40년 미만	(199)	27.1	30.2	34.7	7.0	1.0
	40년 이상	(161)	24.2	30.4	37.9	6.2	1.2
직업	자영업/개인사업	(89)	32.6	25.8	28.1	10.1	3.4
	판매/영업/서비스직	(89)	31.5	20.2	42.7	5.6	0.0
	생산/기능/노무직	(119)	22.7	29.4	37.0	10.1	0.8
	사무/관리/전문직	(425)	24.2	32.7	36.5	6.1	0.5
	전업주부	(134)	26.9	33.6	32.1	6.7	0.7
	학생	(59)	20.3	33.9	37.3	8.5	0.0
	무직/퇴직	(90)	22.2	37.8	32.2	7.8	0.0
	기타	(45)	24.4	31.1	35.6	6.7	2.2

* 중부권: 중구, 동구, 미추홀구 / 남부권: 연수구, 남동구 / 동부권: 부평구, 계양구 / 서부·도서권: 서구, 강화군, 옹진군

* 사례수 적을 경우(30개 미만)는 해석 시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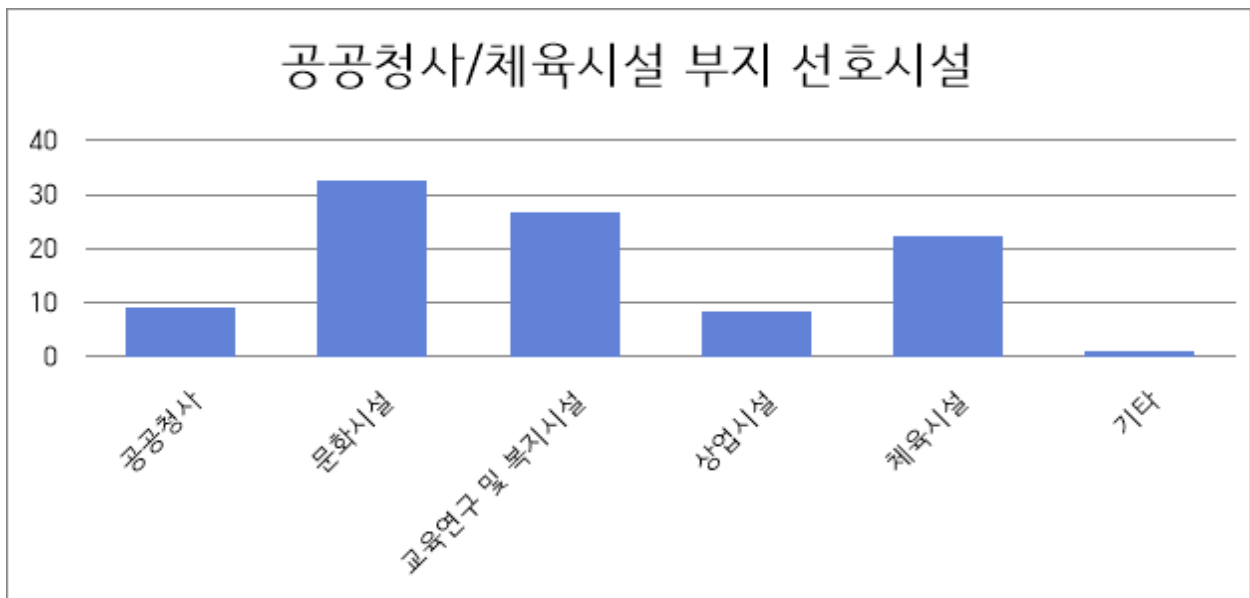
5. 북쪽 공공청사·체육시설 부지 입지시설 선호도

문) 기존 계획된 도시계획 시설 중 장고개로 북측에 계획된 시설인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부지에 어떤 시설이 입지되면 좋을까요?

- '장고개로 북쪽 공공청사·체육시설 부지 입지시설 선호도'조사에서 '문화시설·공연장·회의장·전시장 등'이 3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도서관·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26.8%), '체육시설 -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등'(22.4%), '공공청사 -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9.0%), '상업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8.4%) 등의 순임.
- '기타'는 0.9%로 나타남.

그림 4 | 북쪽 공공청사·체육시설 부지 입지시설 선호도

(Base: 전체, n=1,050, 단위 : %)



⑨ 특성별 분석

- ▶ '문화시설 - 공연장·회의장·전시장'은 남성(33.7%), 50대(35.2%), 남부권(34.9%), 5~10년 미만 거주(38.8%), 생산/기능/노무직(37.0%)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도서관·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은 여성(28.3%), 만 60세 이상(29.2%), 서부/도서권(63.5%), 10~20년 미만(30.5%), 자영업/개인사업(31.5%)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체육시설 -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등'은 여성(23.6%), 20대(26.2%), 중부권(30.4%), 20~30년 미만(25.2%), 전업주부(26.8%)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5 | 북쪽 공공청사·체육시설 부지 입지시설 선호도

(Base: 전체, n=1,050, 단위 : %)

북쪽 공공청사·체육시설 부지 입지시설 선호도		사례수	공공청사· 행정복지센 터 등 관공서	문화시설· 공연장·회 의장·전시 장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학교·도서 관·아동 및 노인복지시 설 등	상업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 설 등	체육시설· 국민체육센 터, 체육관 등	기타
전체		(1,050)	9.0	32.7	26.8	8.4	22.4	0.9
성별	남성	(534)	10.5	33.7	25.3	8.1	21.2	1.3
	여성	(516)	7.4	31.6	28.3	8.7	23.6	0.4
연령별	20대	(187)	8.6	26.7	25.7	12.3	26.2	0.5
	30대	(193)	8.3	32.6	25.4	10.9	22.8	0.0
	40대	(231)	6.5	33.8	27.7	6.9	23.8	1.3
	50대	(244)	9.0	35.2	25.8	7.0	21.3	1.6
	만 60세 이상	(195)	12.8	33.8	29.2	5.6	17.9	0.5
권역별	중부권	(215)	8.9	28.1	25.4	6.29	30.4	0.8
	남부권	(336)	8.0	34.9	29.2	7.3	19.9	0.5
	동부권	(305)	10.1	32.7	23.8	10.4	22.1	1.0
	서부·도서권	(194)	2.5	11.7	63.5	2.7	19.4	0.2
인천시 거주기간	1년 미만	(14)	0.0	28.6	21.4	28.6	21.4	0.0
	1~5년 미만	(80)	6.3	26.3	35.0	8.8	23.8	0.0
	5~10년 미만	(116)	7.8	38.8	27.6	7.8	14.7	3.4
	10~20년 미만	(210)	9.0	31.9	30.5	6.7	21.0	1.0
	20~30년 미만	(270)	10.4	30.4	24.4	9.3	25.2	0.4
	30~40년 미만	(199)	10.6	38.2	19.6	8.0	22.6	1.0
	40년 이상	(161)	7.5	29.8	30.4	8.1	24.2	0.0
직업	자영업/개인사업	(89)	11.2	31.5	31.5	3.4	21.3	1.1
	판매/영업/서비스직	(89)	7.9	28.1	29.2	12.4	22.5	0.0
	생산/기능/노무직	(119)	10.9	37.0	25.2	10.1	14.3	2.5
	사무/관리/전문직	(425)	7.8	34.6	24.9	8.0	23.8	0.9
	전업주부	(134)	7.5	25.4	31.3	8.2	26.9	0.7
	학생	(59)	10.2	28.8	32.2	6.8	22.0	0.0
	무직/퇴직	(90)	10.0	36.7	23.3	11.1	18.9	0.0
	기타	(45)	13.3	33.3	20.0	6.7	26.7	0.0

* 중부권: 중구, 동구, 미추홀구 / 남부권: 연수구, 남동구 / 동부권: 부평구, 계양구 / 서부·도서권: 서구, 강화군, 옹진군

* 사례수 적을 경우(30개 미만)는 해석 시 주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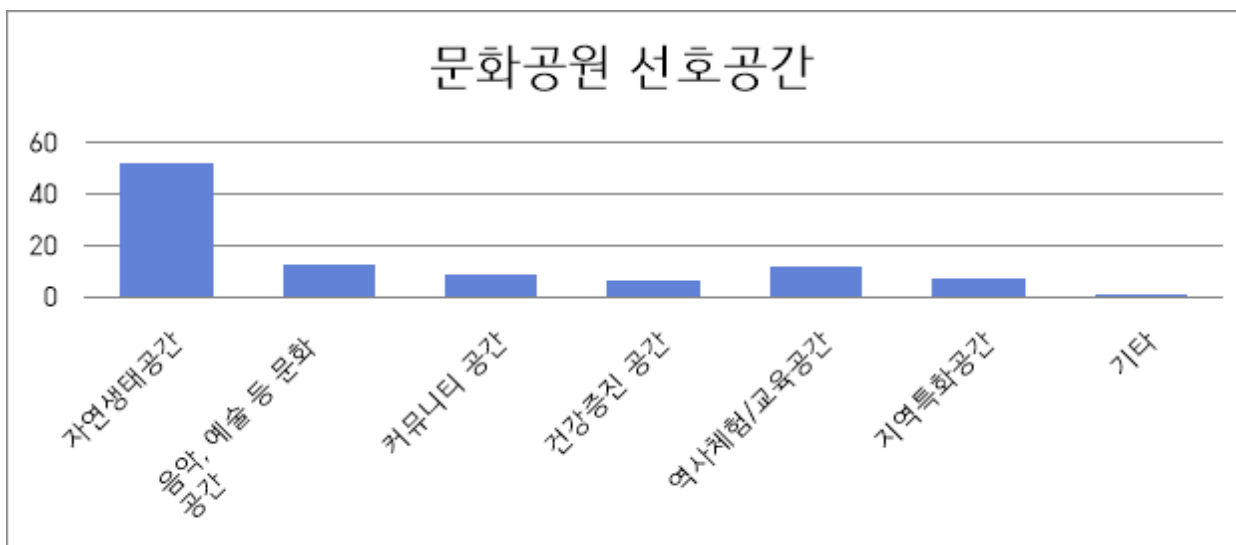
6. 남쪽 문화공원 부지 조성공간 선호도

문) 캠프마켓 남쪽부지는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문화공원 부지에 어떤 공간이 조성되기를 원하십니까?

- '남쪽 문화공원 부지 조성공간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자연생태 공간 - 도시 숲, 정원, 산책로, 피크닉장 등'이 5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이어서 '음악, 예술 등 문화공간 - 창작, 전시, 공연장 등(12.9%)', '역사체험, 교육공간 - 근대건축, 물, 박물관, 역사체험, 전시 등(11.8%)', '커뮤니티 공간 - 지역주민 복합문화 공간, 지역공동체 활동 등(8.9%)', '지역특화 공간 -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7.0%)', '건강증진 공간 - 풋살장, 농구장, 베드민턴장 등(6.4%)', '기타(1.0%)' 등의 순임.

그림 5 | 남쪽 문화공원 부지 조성공간 선호도

(Base: 전체, n=1,050, 단위 : %)



⑨ 특성별 분석

- ▶ '남쪽 문화공원 부지 조성공간'으로 '자연생태 공간 - 도시 숲, 정원, 산책로, 피크닉장 등'은 여성(55.6%), 50대(60.2%), 중부권(55.5%), 1~5년 미만(37.5%), 생산/기능/노무직(56.3%)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음악, 예술 등 문화공간 - 창작, 전시, 공연장 등'은 남성(13.7%), 20대(19.3%), 서부/도서관(37.1%), 1년미만과 10~20년 미만 거주(14.3%), (기타를 제외하면) 학생(16.9%)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역사체험, 교육공간 - 근대건축물, 박물관, 역사체험 전시 등'은 여성(13.0%), 40대(15.2%), 서부/도서관(23.9%), 1년 미만 거주(42.9%), 자영업/개인사업(19.1%)에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6 | 남쪽 문화공원 부지 조성공간 선호도

(Base: 전체, n=1,050, 단위 : %)

남쪽 문화공원 부지 조성공간 선호도		사 례 수	자연생태 공간 - 도시 숲, 정원, 산책로, 피크닉장 등	음악, 예술 등 문화공간 - 창작, 전시, 공연장 등	커뮤니티 공간 - 지역주민 복합문화 공간, 동 지역공동 체 활동 등	건강증진 공간 -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 장 등	역사체험, 교육공간 - 근대건축 물, 박물관, 역사체험, 전시 등	지역특화 공간 -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타
전체		(1,050)	52.0	12.9	8.9	6.4	11.8	7.0	1.0
성별	남성	(534)	48.5	13.7	10.7	8/1	10.7	6.6	1.9
	여성	(516)	55.6	12.0	7.0	4.7	13.0	7.6	0.2
연령별	20대	(187)	44.9	19.3	6.4	11.8	10.2	7.5	0.0
	30대	(193)	40.9	15.5	12.4	6.7	14.0	8.8	1.6
	40대	(231)	51.9	10.8	7.8	4.8	15.2	8.2	1.3
	50대	(244)	60.2	9.4	10.2	3.3	10.7	4.9	1.2
	만 60세 이상	(195)	59.5	10.8	7.2	6.7	8.7	6.2	1.0
권역별	중부권	(215)	55.5	13.4	4.7	7.2	14.0	4.2	1.0
	남부권	(336)	50.5	14.2	7.6	7.2	11.8	8.6	0.3
	동부권	(305)	52.9	14.7	10.3	6.3	8.1	5.9	1.9
	서부/도서권	(194)	43.6	37.1	22.0	19.4	23.9	4.0	0.2
인천시 거주기간	1년 미만	(14)	21.4	14.3	7.1	14.3	42.9	0.0	0.0
	1~5년 미만	(80)	37.5	13.8	13.8	7.5	18.8	8.8	0.0
	5~10년 미만	(116)	42.2	15.5	9.5	7.8	15.5	6.0	3.4
	10~20년 미만	(210)	54.3	14.3	8.6	6.7	8.6	6.7	1.0
	20~30년 미만	(270)	53.7	13.0	7.4	6.7	10.7	8.5	0.0
	30~40년 미만	(199)	56.3	11.6	7.0	5.0	10.6	7.5	2.0
	40년 이상	(161)	57.8	9.9	11.2	5.0	10.6	5.0	0.6
직업	자영업/개인사업	(89)	41.6	13.5	13.5	4.5	19.1	6.7	1.1
	판매/영업/서비스직	(89)	51.7	12.4	10.1	7.9	7.9	9.0	1.1
	생산/기능/노무직	(119)	56.3	10.9	10.1	2.5	9.2	8.4	2.5
	사무/관리/전문직	(425)	54.1	11.5	8.0	7.1	11.3	6.8	1.2
	전업주부	(134)	55.2	12.7	6.7	4.5	14.2	6.0	0.7
	학생	(59)	49.2	16.9	5.1	8.5	11.9	8.5	0.0
	무직/퇴직	(90)	46.7	15.6	8.9	8.9	14.4	5.6	0.0
	기타	(45)	46.7	20.0	13.3	8.9	4.4	6.7	0.0

* 중부권: 중구, 동구, 미추홀구 / 남부권: 연수구, 남동구 / 동부권: 부평구, 계양구 / 서부·도서권: 서구, 강화군, 옹진군

* 사례수 적을 경우(30개 미만)는 해석 시 주의 필요

3) 일반시민 대상 설문지

「인천 소통정책, 시민시장의 생각은?」 2022년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 사전조사계획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광역시 의뢰로 [인천 소통정책, 시민시장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준비하는 코리아스픽스 조사원 000입니다.

본 설문은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사전조사 결과는 토론 쟁점으로 사용되며 관련 자료집으로 참가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며, 답변하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조사 결과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2022년 03월

응답자 선정 질문

Q01. 선생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 1. 서울(→면접 중단) | 2. 부산(→면접 중단) | 3. 대구(→면접 중단) | 4. 인천 |
| 5. 광주(→면접 중단) | 6. 대전(→면접 중단) | 7. 울산(→면접 중단) | 8. 경기(→면접 중단) |
| 9. 강원(→면접 중단) | 10. 충북(→면접 중단) | 11. 충남(→면접 중단) | 12. 세종(→면접 중단) |
| 13. 전북(→면접 중단) | 14. 전남(→면접 중단) | 15. 경북(→면접 중단) | 16. 경남(→면접 중단) |
| 17. 제주(→면접 중단) | | | |

SQ01-1. (SQ01=4 인천 거주자만 응답) 인천시의 어느 구 혹은 어느 군에서 거주하십니까?

- | | | | |
|--------|---------|---------|--------|
| 1. 중구 | 2. 동구 | 3. 미추홀구 | 4. 연수구 |
| 5. 남동구 | 6. 부평구 | 7. 계양구 | 8. 서구 |
| 9. 강화군 | 10. 옹진군 | | |

SQ02. 성별(목소리로 판단) 1. 남자 2. 여자

SQ03.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만 20세 미만 면접 중단)

- | | | | | |
|--------|--------|--------|--------|-------------|
| 1. 20대 | 2. 30대 | 3. 40대 | 4. 50대 | 5. 만 60세 이상 |
|--------|--------|--------|--------|-------------|

B. 캠프마켓 역사와 개방 및 반환 과정에 대한 인식과 세부사항

<참고>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1939년부터 인천육군조병창(군수공장)으로, 1945년 광복 후에는 미국 육군의 군수기지(ASCOM)로 사용되었다가 1996년 이후 반환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되었고,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반환이 결정되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캠프마켓 A,B구역이 반환되었고, 2022년에는 나머지 D구역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토양오염 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화가 완료되면 역사가 어우러진 인천시민의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 캠프마켓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B1. 귀하는 캠프마켓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 | | |
|-------------------|------------------|
| 1) 매우 잘 알고 있는 편이다 | 2) 대체로 알고 있는 편이다 |
| 3) 대체로 모르는 편이다 | 4) 전혀 모르는 편이다 |

B2. 귀하는 현재 개방된 캠프마켓을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1) 한두번 방문한 경험이 있다.
- 2) 여러 차례 방문한 경험이 있다
- 3) 전혀 방문한 경험이 없다

B3. 직접 방문하거나 알고계신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 | |
|------------------|--------------------|
| 1) 시청 또는 구청 홈페이지 | 2) 신문기사 |
| 3) 시청 또는 구청 홍보지 | 4)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
| 5) 기타 | |

C. 캠프마켓 조성 원칙

C1. 인천시는 캠프마켓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조성시 가장 중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가치
- 2) 역사성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고려한 보존과 활용의 균형
- 3)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소통·배움 장소 역할
- 4) 공원조성 전 과정의 실질적인 시민 참여
- 5) 기타 (주관식 입력 설정)

D. 캠프마켓 활용 방안 인식 조사

D1. 기존 계획된 도시계획 시설 중 장고개로 북측에 계획된 시설인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부지에 어떤 시설이 입지되면 좋을까요?

- 1) 공공청사 -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
- 2) 문화시설 - 공연장, 회의장, 전시장 등
-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도서관,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등
- 4) 상업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 5) 체육시설 -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등
- 6) 기타()

D2. 캠프마켓 남쪽부지는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문화공원 부지에 어떤 공간이 조성되기를 원하십니까?

- 1) 자연 생태 공간 - 도시 숲, 정원, 산책로, 피크닉장 등
- 2) 음악, 예술 등 문화 공간 - 창작, 전시, 공연장 등
- 3) 커뮤니티 공간 - 지역주민 복합문화공간, 지역공동체 활동 등
- 4) 건강증진 공간 - 풋살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
- 5) 역사 체험·교육 공간 - 근대건축물, 박물관, 역사 체험·전시 등
- 6) 지역특화 공간 -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7) 기타 ()

응답자 특성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입니다.

DQ01. 귀하께서 인천시에 거주하신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1. 1년 미만 | 2. 1년 이상~5년 미만 | 3. 5년 이상~10년 미만 |
| 4. 10년 이상~20년 미만 | 5. 20년 이상~30년 미만 | 6. 30년 이상~40년 미만 |
| 7. 40년 이상 | | |

DQ02.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 | | |
|--------------|---------------|---------------|
| 1. 자영업/개인사업 | 2. 판매/영업/서비스직 | 3. 생산/기능/노무직 |
| 4. 사무/관리/전문직 | 5. 농림축산업 | 6. 전업주부 |
| 7. 학생 | 8. 무직/퇴직/기타 | 9. (불러주지 말 것) |
| 모름/무응 | | |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